

2021년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21.12.



관악구

제 출 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1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의 최종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수탁 기관 : 한국여론연구소 (연구책임자 이은영)

※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여론조사 수행업체의 견해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제1장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3
2. 조사 설계	3
3. 조사 내용	4
4. 응답자 특성	5
5. 자료 처리 과정 및 분석 방법	8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9
제3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17
1.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	19
2. 위드코로나 정책 우선순위	21
3.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23
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26
5. 서울대 협력사업	28
6. 1인 가구 정책	30
7. 범죄 없는 안전도시-안전수준	33
8. 범죄 없는 안전도시-추진사업	35
9. 교통인프라 정책	38
10. 별빛내린천(도림천) 특화사업	41
11. 쓰레기 배출일	43
12. 주민 소통채널 구독 의향	46
13. 스마트도시 구축	48
14. 민선7기 4년차 성과 분야	51
15. 민선7기 구정 만족도	54
16. 관악구 거주 이유	57
17.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60

| 목 차 |

제4장 FGI 참석자 사전조사 결과 분석	63
1.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관악구 우선 추진 정책	65
2.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65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66
4.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	66
5. 1인 가구 정책	67
6. 서울대 협력사업	67
7. 관악구 안전 수준	68
8. 안전도시 관련 사업 인지도	68
9. 안전도시 위해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69
10. 안전사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	69
10-1. 안전사업 중 집중했으면 하는 사업	70
11. 여성안전 사업	70
12. 안전한 도시사업 평가	71
제5장 FGI 참석자들의 여성안전 사업에 대한 인식	73
별첨 : 설문지	81

제1장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2021년은 관악구 민선7기 4년차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통해 구정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정책과제에 대한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함.
-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여 관악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관악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량조사를 통해 관악구 정책 진단과 평가를 확인함. 정량조사는 관악구민의 집합적인 의견 및 필요성을 수치화할 수 있지만, 인식이나 만족도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조사(FGI)¹⁾를 실시하여 정책 필요성과 만족도 이유 및 바라는 점 등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고려함.

2. 조사 설계

가. 설문조사 설계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CATI 전화면접조사 + 온라인 조사
■■■	모집단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수	1,000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기간	2021년 11월 2일 (화)~11월 9일 (화) : 7일간
■■■	조사기관	한국여론연구소(대표 : 이은영)

나. FGI 설계

■■■	조사방법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심층그룹 인터뷰
■■■	모집단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	표본수	총 4그룹(그룹당 7~10명)
■■■	조사기간	2021년 11월 19일, 20일 (2일간)
■■■	조사기관	한국여론연구소(대표 : 이은영)

1) 표적집단면접법(FGI : Focus Group Interview) : 면접자를 일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7~10명 정도 선발하여,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면접자의 진행 아래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기법

3. 조사 내용

가.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거주지역, 성별, 직업, 거주기간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 위드코로나 정책 우선순위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서울대 협력사업 1인 가구 정책 범죄 없는 안전도시 - 안전 수준 범죄 없는 안전도시 - 추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인프라 정책 별빛내린천(도림천) 특화사업 쓰레기 배출일 주민 소통채널 구독 의향 스마트도시 구축 민선7기 4년차 성과 분야 민선7기 구정 만족도 관악구 거주 이유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나. FGI 내용

구분	조사 내용	
Int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자 인사, 회사 소개 및 좌담회의 목적 설명 좌담회의 필요성 및 특징 소개 	
관악구 거주 및 위드코로나 방역 행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악구 거주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드코로나 방역행정
관악구 생활정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악구 경전철 노선 관련 인식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1인 가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 서울대 협력사업
여성 치안과 안전·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악구 안전 수준 1인 가구 지원 복지 정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없는 안전 도시 - 추진 사업 관악구 안전사업 평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악구 부동산 및 주거환경 관련 평가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악구에 제안할 정책 및 개선점 	

4. 응답자 특성

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1	50.1
	여성	499	49.9
연령	19 ~ 29세	257	25.7
	30대	192	19.2
	40대	150	15.0
	50대	150	15.0
	60대	251	25.1
권역 (시의원)	제1선거구	270	27.0
	제2선거구	273	27.3
	제3선거구	228	22.8
	제4선거구	229	22.9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22.8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349	34.9
	기능/작업직	30	3.0
	가정주부	169	16.9
	학 생	65	6.5
	무 직	142	14.2
	기 타	17	1.7
거주기간	5년 미만	177	17.7
	5년 이상~10년 미만	129	12.9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15.1
	20년 이상	543	54.3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나. FGI 그룹별 참석자 구성

#1그룹 : 관악구 거주 20~40대 여성 (2021년 11월 19일 11시)

연번	이름	연령대	거주지	직종
1	박 ○ ○	40대	난곡로	전업주부
2	김 ○ ○	20대	서림로	학생
3	이 ○ ○	20대	호암로	학생
4	박 ○ ○	40대	신림로31길	전업주부
5	김 ○ ○	40대	남현동	전업주부
6	윤 ○ ○	20대	봉천로	학생
7	이 ○ ○	40대	호암로	전업주부

#2그룹 : 관악구 거주 30~40대 혼성 (2021년 11월 19일 19시)

연번	이름	연령대	거주지	직종
1	심 ○ ○	30대	은천로	직장인
2	김 ○ ○	40대	은천로	직장인
3	오 ○ ○	30대	봉천로	직장인
4	안 ○ ○	30대	봉천로	직장인
5	심 ○ ○	40대	문성로	자영업
6	최 ○ ○	40대	보라매로	자영업
7	한 ○ ○	30대	봉천로	자영업
8	김 ○ ○	30대	문성로	직장인
9	강 ○ ○	30대	인현1다길	자영업

#3그룹 : 관악구 거주 50~60대 여성 (2021년 11월 20일 1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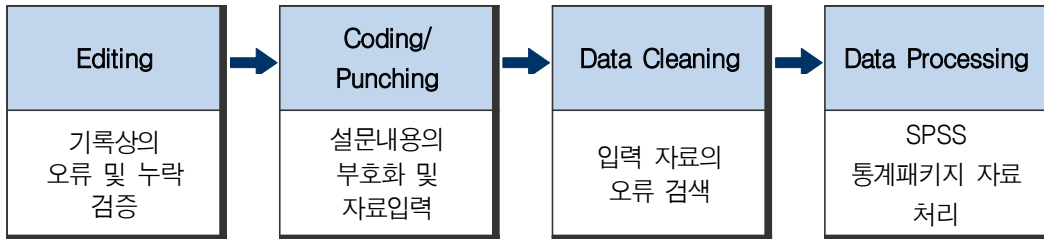
연번	이름	연령대	거주지	직종
1	박 ○ ○	50대	남부순환로	전업주부
2	권 ○ ○	50대	참숯1길	전업주부
3	김 ○ ○	50대	관악로	전업주부
4	정 ○ ○	60대	낙성대로	전업주부
5	양 ○ ○	60대	은천로	전업주부
6	도 ○ ○	60대	호암로	전업주부
7	김 ○ ○	60대	인헌다길	전업주부
8	강 ○ ○	50대	봉천로	전업주부
9	김 ○ ○	60대	은천로35가길	전업주부
10	이 ○ ○	60대	낙성대로	전업주부

#4그룹 : 관악구 거주 50~60대 남성 (2021년 11월 20일 15시)

연번	이름	연령대	거주지	직종
1	김 ○ ○	50대	양산길	직장인
2	정 ○ ○	50대	호암로22길	직장인
3	강 ○ ○	50대	청룡11길	직장인
4	심 ○ ○	60대	난우10가길	직장인
5	강 ○ ○	40대	문성로	자영업
6	김 ○ ○	40대	문성로	자영업
7	이 ○ ○	40대	관악로	무직
8	이 ○ ○	60대	낙성대로	자영업

5. 자료 처리 과정 및 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Editing),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 입력(Coding/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음.



○ 분석 방법

- 문항별 결과는 열(Row)에 따라 백분율(%)로 산출되며, 결과값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 시 라운딩 에러²⁾가 나타날 수 있음.
- 중복응답의 경우, 카테고리의 사례수를 전체 사례수에 근거하여 백분율을 산출함.
- 자료는 기본적인 응답자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교차 분석되었음.
- 평균값이 필요한 경우 크로스 집계(cross tabulation)에서 평균값 산출함.

○ 자료 해석상의 유의점

- 표본조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의 관찰치(Observed Percentage)에 따른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고려해야 함.
- 사례수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n < 30$) 극단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값 또는 세부 집단 간 비교 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함.

2) rounding error : 반올림 오차이며, 실제 전체 합은 100%이나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합이 100.1% 또는 99.9%로 나타나는 현상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1.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

- '구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87.9%(매우 필요하다 35.5%+대체로 필요하다 52.4%)로 높게 나타남.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5%(전혀 필요하지 않다 2.0%+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6.5%)로 조사되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3.6%임

[n=1,000명, 단위 : %]

매우 필요하다 ①	대체로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⑤	필요하다 (①+②)	필요하지 않다 (③+④)	잘 모르겠다 ⑤
35.5	52.4	6.5	2.0	3.6	87.9	8.5	3.6

2. 워드코로나 정책 우선순위

- '워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악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구민 지원'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29.4%),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원'(25.4%), '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사업'(13.2%) 순으로 조사됨

[n=1,000명, 단위 : %]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구민 지원	일자리 창출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원	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사업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29.5	29.4	25.4	13.2	0.9	0.3	1.3

3.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관악구민의 55.4%는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10.3%+대체로 도움이 된다 45.1%)고 응답하였으며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8%(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3%+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6.6%)로 응답하였음.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11.8%임

[n=1,000명, 단위 : %]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매우 도움이 된다 ①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⑤	도움이 된다 (①+②)	도움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르겠다 ⑤
2021년	10.3	45.1	26.6	6.3	11.8	55.4	32.8	11.8
2020년	9.3	50.2	14.9	3.3	22.3	59.5	18.2	22.3

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81.2%(매우 필요하다 29.0%+대체로 필요하다 52.2%)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전혀 필요하지 않다 3.3%+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2.5%)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3.1%임

[n=1,000명, 단위 : %]

매우 필요하다 ①	대체로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③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⑤	필요하다 (①+②)	필요하지 않다 (③+④)	잘 모르겠다 ⑤
29.0	52.2	12.5	3.3	3.1	81.2	15.8	3.1

5. 서울대 협력사업

- '서울대 협력 교육 지원 사업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관악구민의 77.6%는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25.8%+대체로 도움이 된다 51.8%)라고 응답하였으며,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2%(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3%+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9%)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3.2%였음

[n=1,000명, 단위 : %]

매우 도움이 된다 ①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⑤	도움이 된다 (①+②)	도움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르겠다 ⑤
25.8	51.8	14.9	4.3	3.2	77.6	19.2	3.2

6. 1인 가구 정책

-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주거복지 지원'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제공'(26.3%), '생계비 지원'(14.5%), '사회관계망 형성'(13.4%), '건강·돌봄 서비스' (11.4%)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인 가구 정책으로 '주거복지 지원'을 응답한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3.3%p(28.5%→31.8%) 증가하였음. '일자리 제공'이라는 응답은 4.6%p(21.7%→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n=1,000명, 단위 : %]

1인 가구 정책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제공	생계비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돌봄 서비스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2021년	31.8	26.3	14.5	13.4	11.4	1.6	0.1	1.1
2020년	28.5	21.7	16.3	13.1	17.2	3.2	-	-

7. 범죄 없는 안전도시 - 안전 수준

- '관악구 현재 안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안전하다는 응답이 62.9%(매우 안전하다 6.8%+ 대체로 안전하다 56.1%)로 나타났으며 불안하다는 응답은 35.6%(매우 불안하다 5.6%+ 대체로 불안하다 30.0%)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1.5%임

[n=1,000명, 단위 : %]

매우 안전하다 ①	대체로 안전하다 ②	대체로 불안하다 ③	매우 불안하다④	잘 모르겠다 ⑤	안전하다 (①+②)	불안하다 (③+④)	잘 모르겠다 ⑤
6.8	56.1	30.0	5.6	1.5	62.9	35.6	1.5

8. 범죄 없는 안전도시 - 추진 사업

-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조사한 결과, 'CCTV와 가로등, 안전조명 확충'(58.5%)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범죄 예방 순찰'(20.7%), '안심홈세트 지원 등 안전취약 대상 지원사업'(12.1%), '폭력 예방 교육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7.3%) 순으로 응답함
- 2020년 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 전년도와 금년도 조사에서 안전한 도시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CCTV와 가로등, 안전조명 확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13.1%p(45.4%→58.5%) 증가하였음

[n=1,000명, 단위 : %]

범죄 없는 안전도시 추진 사업	CCTV와 가로등, 안전조명 확충	범죄 예방 순찰	안심홈세트 지원 등 안전취약 대상 지원사업	폭력 예방 교육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2021년	58.5	20.7	12.1	7.3	0.7	0.1	0.6
2020년	45.4	23.7	-	4.4	1.9	-	-

9. 교통인프라 정책

-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공영주차장 확충'(50.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행환경 개선'(29.5%), '자전거 도로 확충'(9.2%), '통학로 개선'(7.6%) 순이었음
- 관악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전년도와 금년도 모두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6.2%p(44.5%→50.7%) 증가하였음.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응답은 4.5%p(25.0%→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n=1,000명, 단위 : %]

교통인프라 정책	공영주차장 확충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 도로 확충	통학로 개선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마을버스 노선 확충
2021년	50.7	29.5	9.2	7.6	0.9	0.4	1.8	-
2020년	44.5	25.0	9.0	-	6.4	-	-	15.1

10. 별빛내린천(도림천) 특화사업

- '별빛내린천 특화사업 관악구 생활환경 개선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관악구민의 78.8%가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26.0%+대체로 도움이 된다 52.8%)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3%+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3%)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임

[n=1,000명, 단위 : %]

매우 도움이 된다 ①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⑤	도움이 된다 (①+②)	도움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르겠다 ⑤
26.0	52.8	14.3	4.3	2.6	78.8	18.6	2.6

11. 쓰레기 배출일

- '쓰레기 배출 요일'을 조사한 결과, 관악구민의 48.5%가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되는 요일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요일 가능하다'(28.8%), '일요일'(14.4%), '월·수·금'(8.2%), '화·목·토'(5.2%) 순으로 응답함
- 관악구의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되는 요일을 '토요일'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구민은 0.2%p (48.7%→4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n=1,000명, 단위 : %]

쓰레기 배출일	토요일	모든 요일 가능하다	일요일	월·수·금	화·목·토
2021년	48.5	23.8	14.4	8.2	5.2
2020년	48.7	19.8	13.1	8.9	9.5

12. 주민 소통채널 구독 의향

- '주민 소통채널 구독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구독 의향 있다'는 32.2%, '구독 의향 없다'는 28.4%로 구독 의향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음. '좀 생각해 보겠다'는 유보 응답은 39.4%임

[n=1,000명, 단위 : %]

구독 의향 있다	구독 의향이 없다	좀 생각해 보겠다
32.2	28.4	39.4

13. 스마트도시 구축

- '스마트도시 정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84.3%(매우 필요하다 31.8% + 대체로 필요하다 52.4%)로 높은 편이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9%(전혀 필요하지 않다 1.4%+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9.4%)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4.9%임

[n=1,000명, 단위 : %]

스마트도시 구축	매우 필요하다 ①	대체로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⑤	필요하다 (①+②)	필요하지 않다 (③+④)	잘 모르겠다 ⑤
2021년	31.8	52.4	9.4	1.4	4.9	84.3	10.9	4.9
2020년	28.3	51.0	10.7	2.0	8.0	79.3	12.7	8.0

14. 민선7기 4년차 성과 분야

- '민선7기 4년차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를 조사한 결과, '교통·환경' 분야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24.0%), '지역경제'(12.9%), '교육·문화'(11.6%) 순임
- 2020년 조사에서 관악구가 내년에 주력해야 할 분야로 '지역경제'(34.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1년 조사에서 민선7기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로 '교통·환경'이 27.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n=1,000명, 단위 : %]

민선7기 4년차 성과 분야	교통·환경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문화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2021년	27.4	24.0	12.9	11.6	0.3	6.3	17.5
2020년	30.1	23.0	34.8	10.1	2.0	-	-

15. 민선7기 구정 만족도

- '민선7기 구정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9.9%(매우 잘하고 있다 6.2% + 대체로 잘하고 있다 63.7%)로 나타났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23.9%(매우 잘못하고 있다 3.7%+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0.2%)로 나타나 불만족 비율보다 만족 비율이 더 높았음. 잘 모르겠다는 유보 비율은 6.3%임
- 민선7기 구정 만족도는 2020년 조사에 비해 11.2%p(58.7%→69.9%) 증가하였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유보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2.2%p(18.5%→6.3%) 줄어들어 따라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n=1,000명, 단위 : %]

민선7기 구정 만족도	매우 잘하고 있다 ①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③	매우 잘못하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⑤	잘하고 있다 (①+②)	잘못하고 있다 (③+④)	잘 모르겠다 ⑤
2021년	6.2	63.7	20.2	3.7	6.3	69.9	23.9	6.3
2020년	5.0	53.7	19.6	3.2	18.5	58.7	22.8	18.5

16. 관악구 거주 이유

- '관악구 거주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38.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24.2%), '공원, 산 등 자연환경이 좋아서'(20.2%), '교육,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3.5%) 순으로 응답하였음
-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유가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조사 대비 0.8%p(37.7%→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 응답률은 1.0%p(23.2%→24.2%) 올랐으며, '교육,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 응답률은 1.2%p(2.3%→3.5%) 증가하였음

[n=1,000명, 단위 : %]

관악구 거주 이유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	공원, 산 등 자연환경이 좋아서	교육,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2021년	38.5	24.2	20.2	3.5	11.5	0.6	1.8
2020년	37.7	23.2	20.4	2.3	16.4	-	-

17.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인지 경로는 '현수막'(22.4%)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18.4%), '구정소식지(관악소리)'(15.0%), '관악구 지역신문'(14.4%), 'HCN 케이블 방송'(10.1%), '관악구청 홈페이지'(8.9%), '인터넷신문(해피매거진)'(5.6%), '관악구청 홍보매체(전광판 등)'(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가 '현수막'이라는 응답은 2020년 조사에 비해 3.0%p(19.4%→22.4%) 증가하였음.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응답은 전년도 대비 2.2%p(16.2%→18.4%) 증가함

[n=1,000명, 단위 : %]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현수막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구정 소식지 (관악 소리)	관악구 지역 신문	HCN 케이블 방송	관악구청 홈페이지	인터넷신문 (해피매 거진)	관악구청 홍보매체 (전광판 등)	공무원 등 관계자
2021년	22.4	18.4	15.0	14.4	10.1	8.9	5.6	5.2	-
2020년	19.4	16.2	15.1	15.5	15.7	15.5	-	-	2.6

제3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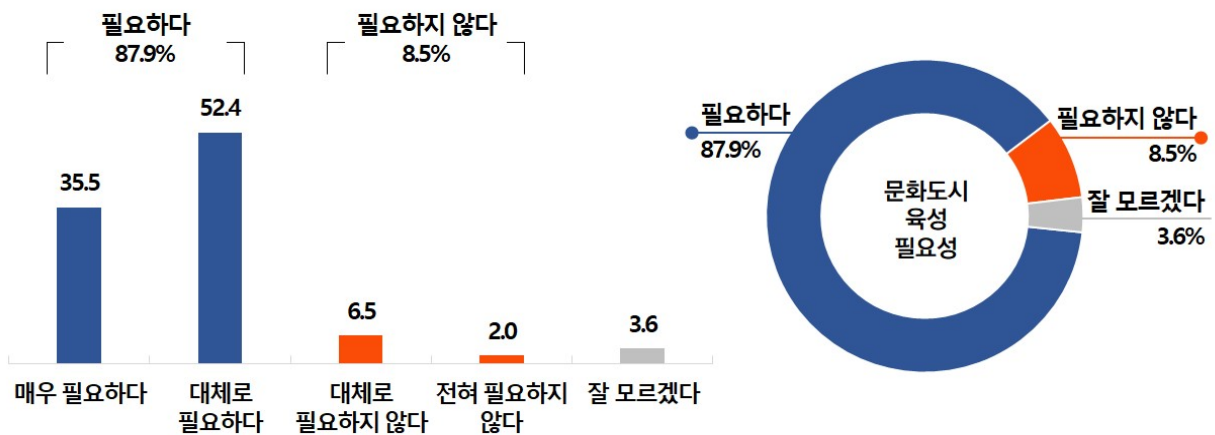
문. 관악구는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87.9%(매우 필요하다 35.5%+대체로 필요하다 52.4%)로 높게 나타남.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5%(전혀 필요하지 않다 2.0%+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6.5%)로 조사되었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 응답은 3.6%임

[그림1]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

[n=1,000명, 단위:%]



응답자 특성별

- ▶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89.8%), 30대(95.5%), 제4선거구(90.2%), 기타 직업군(94.8%), 거주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93.9%) 집단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
- ▶ 반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9.5%), 40대(13.4%), 제1선거구(9.8%), 학생(13.8%), 20년 이상 거주자(9.2%) 집단에서 높았음

요약 및 제언

- ▶ 관악구는 관악문화재단과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감찬을 도시 브랜드로 구축하고 관악강감찬축제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역사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구민 조사 결과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해 8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에 따라 구민들의 수요가 높은 문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한편,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1]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①	대체로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⑤	필요하다 (①+②)	필요하지 않다 (③+④)	잘 모르겠다 ⑤
전체		1000	35.5	52.4	6.5	2.0	3.6	87.9	8.5	3.6
성별	남성	501	37.5	48.6	7.1	2.4	4.4	86.1	9.5	4.4
	여성	499	33.5	56.3	6.0	1.5	2.7	89.8	7.5	2.7
연령	19 ~ 29세	257	29.9	60.2	8.7	1.2	-	90.1	9.9	-
	30대	192	42.7	52.8	3.5	1.0	-	95.5	4.5	-
	40대	150	31.6	50.4	11.3	2.1	4.5	82.1	13.4	4.5
	50대	150	42.2	43.9	5.3	3.9	4.6	86.2	9.2	4.6
	60대 이상	251	34.1	50.5	4.5	2.3	8.8	84.5	6.7	8.8
권역	제1선거구	270	34.5	53.1	7.7	2.1	2.6	87.6	9.8	2.6
	제2선거구	273	32.2	55.7	6.7	1.5	3.9	87.8	8.2	3.9
	제3선거구	228	38.2	48.0	7.0	1.9	4.8	86.3	8.9	4.8
	제4선거구	229	38.0	52.2	4.5	2.3	3.0	90.2	6.8	3.0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34.0	47.6	8.1	3.9	6.4	81.6	12.0	6.4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349	37.4	54.2	6.1	1.4	0.9	91.6	7.5	0.9
	기능/작업직	30	30.5	58.7	2.4	-	8.5	89.2	2.4	8.5
	가정주부	169	36.4	52.1	5.1	0.8	5.5	88.6	6.0	5.5
	학생	65	36.4	49.8	13.8	-	-	86.2	13.8	-
	무직	142	31.8	56.4	5.1	2.4	4.3	88.1	7.6	4.3
	기타	17	43.7	51.1	-	5.2	-	94.8	5.2	-
거주기간	5년 미만	177	32.7	57.6	8.2	0.5	1.0	90.4	8.7	1.0
	5년 이상~10년 미만	129	37.5	56.4	4.3	1.8	-	93.9	6.1	-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40.1	48.4	4.5	3.3	3.7	88.5	7.8	3.7
	20년 이상	543	34.7	50.9	7.1	2.1	5.2	85.6	9.2	5.2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2. 위드코로나 정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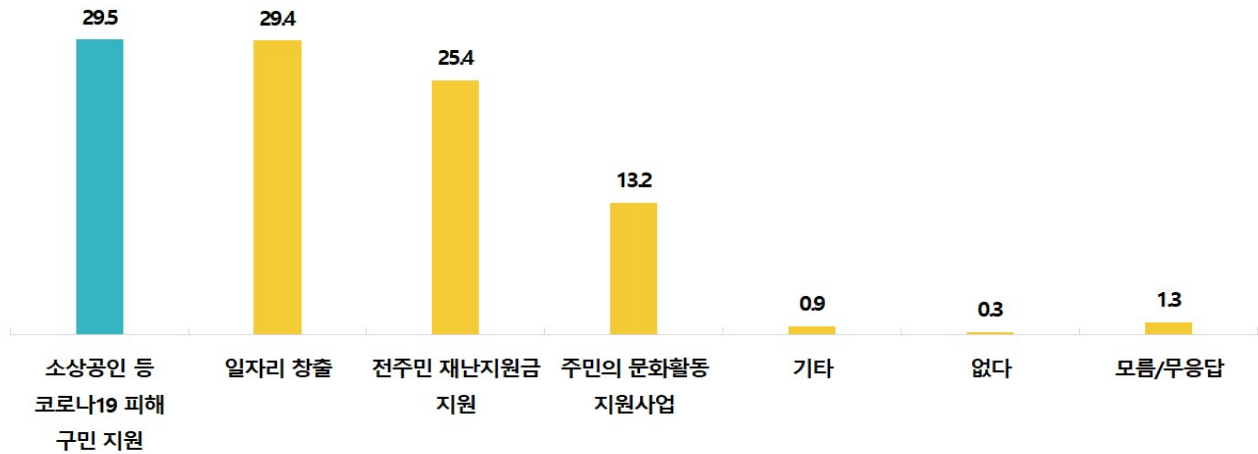
문.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악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사 결과

- ▶ 위드코로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구민 지원'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29.4%), '전주민 재난지원금 지원'(25.4%), '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사업'(13.2%) 순으로 조사됨
- ▶ 기타 의견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 '주거 환경 개선', '마을버스 노선 확대', '청년미술인 작업 지원', '문화시설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응답이 있었음

[그림2] 위드코로나 정책 우선순위

[n=1,000명, 단위:%]



응답자 특성별

- ▶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악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구민 지원'이라고 선택한 비율은 남성(30.3%), 40대(43.9%), 제4선거구(33.2%), 자영업/판매/서비스직 종사자(44.9%),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자(32.2%) 집단에서 높았음

요약 및 제언

- ▶ 2020 조사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관악구에서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소상공인 등 피해 구민 지원'(25.7%)이 2위였지만, 올해 조사에선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구민 지원'이 29.5%로 첫 번째로 응답됨
- ▶ 관악구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청년, 노년층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여러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코로나19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표2] 워드코로나 정책 우선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소상공인 등 코로나 19 피해 주민 지원	일자리 창출	전 주민 재난지 원금 지원	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사업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1000	29.5	29.4	25.4	13.2	0.9	0.3	1.3
성별	남성	501	30.3	27.0	28.4	12.0	0.9	0.5	1.0
	여성	499	28.7	31.8	22.4	14.5	0.9	0.1	1.6
연령	19~29세	257	20.4	26.6	34.1	18.2	0.8	-	-
	30대	192	29.7	18.1	34.2	17.1	0.9	-	-
	40대	150	43.9	25.4	20.1	7.0	1.1	-	2.5
	50대	150	40.1	29.5	18.7	8.8	0.7	0.7	1.5
	60대 이상	251	23.9	43.3	16.8	11.5	0.9	0.8	2.8
권역	제1선거구	270	27.4	30.0	25.1	15.7	1.2	-	0.6
	제2선거구	273	29.1	29.9	25.6	13.7	-	0.7	1.0
	제3선거구	228	28.8	28.3	26.4	12.9	0.8	0.3	2.5
	제4선거구	229	33.2	29.1	24.6	10.1	1.4	0.3	1.4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44.9	24.0	22.3	6.9	0.8	-	1.1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349	26.0	22.6	32.1	17.7	1.5	0.2	-
	기능/작업직	30	19.8	35.5	28.8	5.9	-	-	10.0
	가정주부	169	26.0	38.9	17.7	14.3	-	0.4	2.6
	학생	65	32.8	34.7	19.1	12.0	1.4	-	-
	무직	142	18.2	38.0	25.4	14.4	0.5	1.3	2.3
	기타	17	28.3	44.0	22.5	5.2	-	-	-
거주기간	5년 미만	177	26.8	22.4	31.2	18.5	1.0	-	-
	5년 이상~10년 미만	129	32.2	19.8	34.2	11.9	1.9	-	-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31.3	26.9	26.0	13.7	0.6	0.4	1.2
	20년 이상	543	29.3	34.6	21.2	11.7	0.5	0.5	2.1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3.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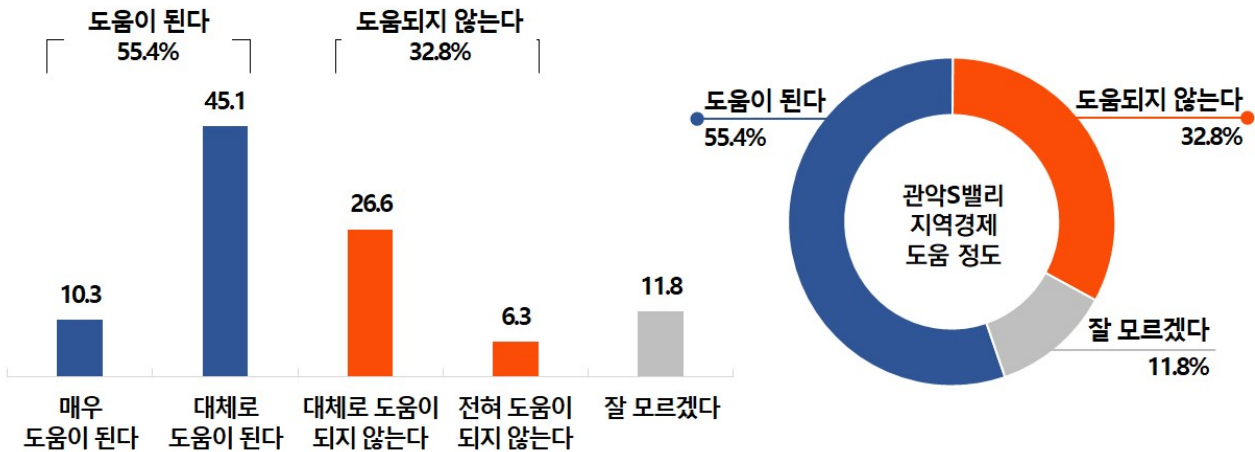
문. 관악구는 지난 3년간 ‘관악S밸리’ 사업으로 창업공간 11개소 조성, 창업지원펀드 신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관악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관악S밸리의 지역 경제발전 도움 정도를 물어본 결과, 관악구민의 55.4%는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10.3% + 대체로 도움이 된다 45.1%)고 응답하였으며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8%(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3% +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6.6%)로 응답하였음. 잘 모르겠다 유보 응답은 11.8%임

[그림3]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n=1,00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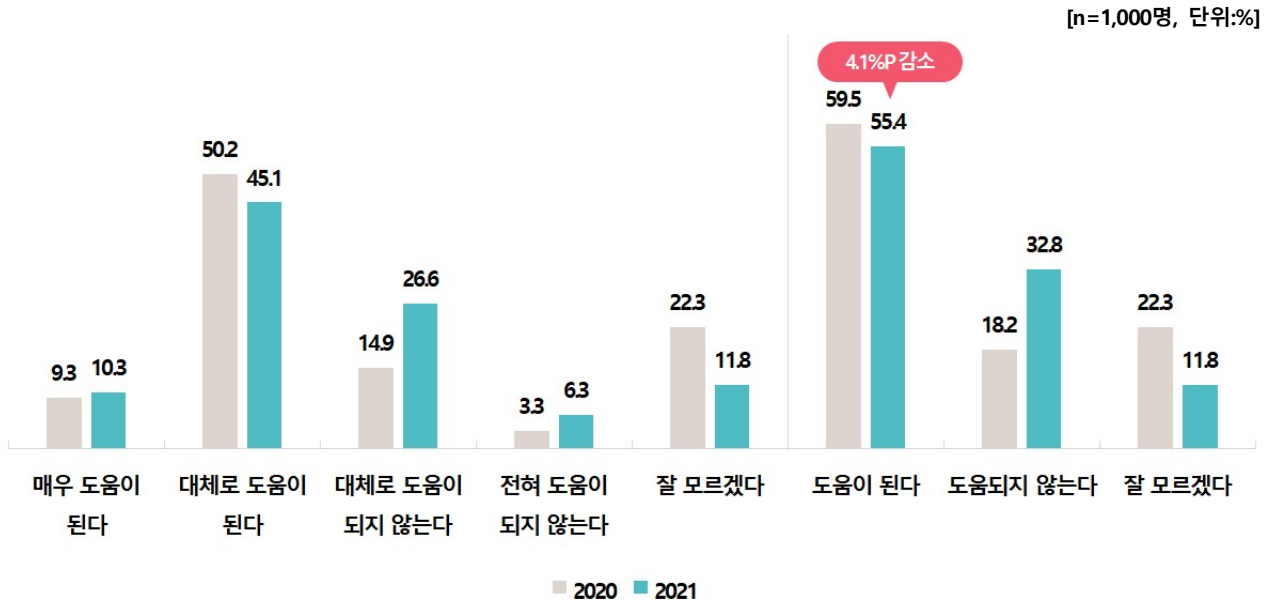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관악S밸리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56.2%), 60대 이상(60.9%), 제3선거구(56.9%), 기능/작업직 종사자(62.8%), 5년 미만 거주자(60.7%) 집단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
- ▶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34.8%), 30대(44.1%), 제1선거구(35.4%), 학생(43.0%),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자(43.0%)에서 높게 나타남

**좌담회
참석자
발언**

- ▶ “도움은 될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5060대 주부층]
- ▶ “청년층을 위한 것 같은데 관악구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필요해요”
[5060대 남성층]

[그림4]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연도별 비교



연도별
응답
비율

- ▶ 2020년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관악S밸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4.1%p(59.5%→5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6%p(18.2%→32.8%) 증가해 관악구민은 전년도에 비해 관악S밸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요약
및
제언

- ▶ 관악S밸리가 관악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년도 대비 4.1%p 감소하였음. 아직 사업 진행 중으로 구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나, 55.4% 긍정 반응으로 구민의 과반수 이상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 ▶ 주로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위한 벤처타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거나 봉사할 것이란 믿음이 크지 않은 분위기였음.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갖고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음. 일단은 사업의 인지도를 올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 ▶ 현수막, SNS를 통해 관악S밸리에 대한 의의와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필요함

[표3]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도움이 된다 ①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 다 ⑤	도움이 된다 (①+②)	도움되 지 않는다 (③+④)	잘 모르겠 다 ⑤
전 체		1000	10.3	45.1	26.6	6.3	11.8	55.4	32.8	11.8
성별	남성	501	10.5	44.2	26.6	8.2	10.5	54.7	34.8	10.5
	여성	499	10.2	46.0	26.5	4.3	13.0	56.2	30.8	13.0
연령	19 ~ 29세	257	7.2	50.0	36.8	5.9	-	57.2	42.8	-
	30대	192	6.9	49.0	34.4	9.6	-	55.9	44.1	-
	40대	150	9.7	37.8	24.1	11.0	17.4	47.5	35.1	17.4
	50대	150	11.9	38.5	20.1	5.8	23.7	50.4	25.9	23.7
	60대 이상	251	15.5	45.4	15.3	1.4	22.3	60.9	16.8	22.3
권역	제1선거구	270	12.4	40.9	31.3	4.1	11.2	53.4	35.4	11.2
	제2선거구	273	8.8	47.9	25.1	7.8	10.3	56.8	32.9	10.3
	제3선거구	228	9.8	47.2	26.1	4.4	12.6	56.9	30.5	12.6
	제4선거구	229	10.1	44.6	23.1	8.9	13.3	54.7	32.0	13.3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10.2	43.2	22.9	7.4	16.3	53.4	30.3	16.3
	사무/기술직/경영/관리 /전문직	349	9.0	44.8	34.0	7.4	4.9	53.8	41.3	4.9
	기능/작업직	30	15.8	47.0	9.7	6.4	21.1	62.8	16.1	21.1
	가정주부	169	12.5	44.0	18.9	3.4	21.2	56.5	22.3	21.2
	학생	65	4.3	52.7	38.4	4.6	-	57.0	43.0	-
	무직	142	13.5	45.4	22.0	4.7	14.4	58.9	26.7	14.4
	기타	17	4.3	53.1	22.3	16.3	4.0	57.5	38.5	4.0
거주 기간	5년 미만	177	8.2	52.5	29.3	6.4	3.5	60.7	35.7	3.5
	5년 이상~10년 미만	129	7.4	46.7	35.4	7.6	2.9	54.1	43.0	2.9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9.6	42.7	25.8	5.0	16.9	52.3	30.7	16.9
	20년 이상	543	11.9	43.0	23.8	6.3	15.1	54.9	30.0	15.1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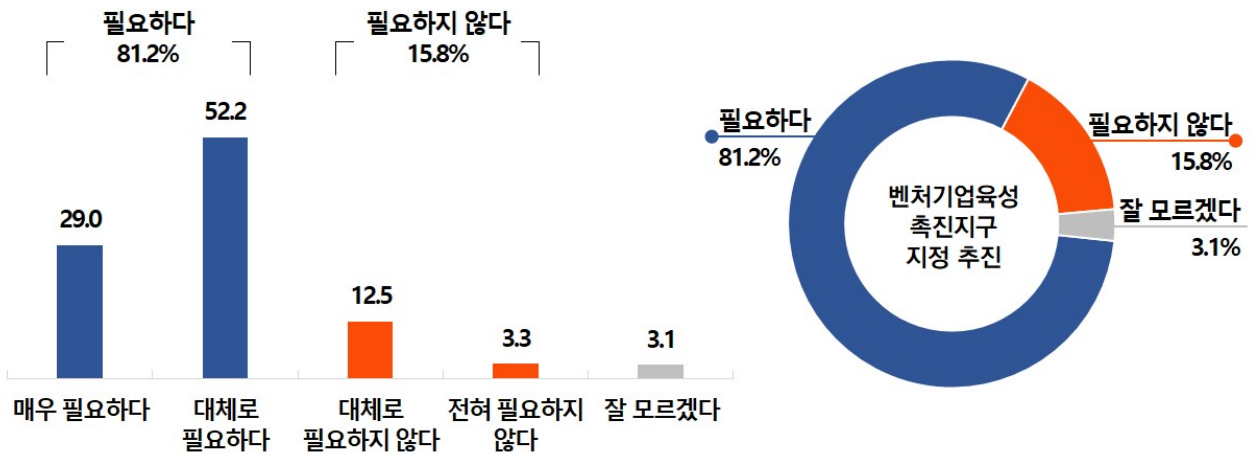
문. 관악구는 창업기업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2%(매우 필요하다 29.0% + 대체로 필요하다 52.2%)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전혀 필요하지 않다 3.3%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2.5%)로 나타나 관악구민의 10명 중 8명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관악구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n=1,000명, 단위:%]



**응답자
특성별**

- ▶ 관악구가 추진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81.8%), 60대 이상(82.9%), 제4선거구(81.7%), 기타 직업군(84.4%), 5년 미만 거주자(86.7%)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음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남성(17.0%), 40대(22.1%), 제1선거구(16.9%), 자영업/판매/서비스직 종사자(17.7%),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자(18.2%) 집단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

**요약
및
제언**

- ▶ 관악구는 벤처창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벤처창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관악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을 비롯하여 공간, 기술,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표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 다 ①	대체로 필요하 다 ②	대체로 필요하 지 않다③	전혀 필요하 지 않다 ④	잘 모르겠 다 ⑤	필요하 다 (①+②)	필요하 지 않다 (③+④)	잘 모르겠 다 ⑤
전 체		1000	29.0	52.2	12.5	3.3	3.1	81.2	15.8	3.1
성별	남성	501	32.3	48.2	12.3	4.7	2.5	80.5	17.0	2.5
	여성	499	25.6	56.2	12.7	1.9	3.7	81.8	14.5	3.7
연령	19 ~ 29세	257	16.2	66.6	13.9	3.3	-	82.8	17.2	-
	30대	192	18.4	63.6	12.6	5.4	-	82.0	18.0	-
	40대	150	34.4	41.0	18.8	3.3	2.4	75.5	22.1	2.4
	50대	150	40.5	39.6	10.6	4.6	4.6	80.2	15.2	4.6
	60대 이상	251	40.0	42.9	8.2	0.9	8.0	82.9	9.1	8.0
권역	제1선거구	270	28.4	52.9	13.7	3.2	1.7	81.3	16.9	1.7
	제2선거구	273	24.8	55.4	12.1	4.3	3.4	80.2	16.4	3.4
	제3선거구	228	30.9	50.6	12.7	2.2	3.6	81.5	14.9	3.6
	제4선거구	229	32.6	49.2	11.3	3.3	3.7	81.7	14.6	3.7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38.0	41.9	13.9	3.8	2.4	79.8	17.7	2.4
	사무/기술직/경영/관리 /전문직	349	22.6	60.4	13.1	3.7	0.2	83.1	16.7	0.2
	기능/작업직	30	37.4	37.9	3.7	6.1	14.9	75.3	9.8	14.9
	가정주부	169	33.4	45.5	12.9	1.1	7.1	78.9	14.0	7.1
	학생	65	21.9	61.8	16.3	-	-	83.7	16.3	-
	무직	142	27.2	53.8	8.5	4.8	5.7	81.0	13.3	5.7
	기타	17	20.7	63.7	10.4	5.2	-	84.4	15.6	-
거주 기간	5년 미만	177	21.0	65.7	10.5	2.7	-	86.7	13.3	-
	5년 이상~10년 미만	129	19.1	62.7	12.9	5.2	-	81.8	18.2	-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24.0	56.4	16.5	1.2	1.9	80.5	17.7	1.9
	20년 이상	543	35.3	44.1	11.9	3.6	5.1	79.4	15.5	5.1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5. 서울대 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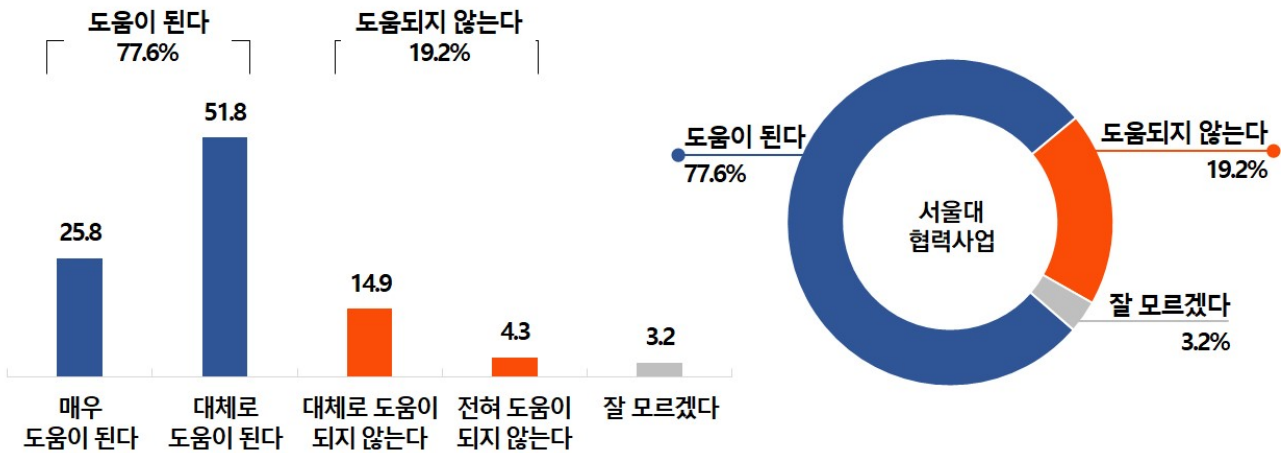
문. 관악구는 서울대와 협력하여 구민들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관악 교육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서울대 협력사업에 대해 관악구민의 77.6%는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25.8% + 대체로 도움이 된다 51.8%)라고 응답하였으며,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2%(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3% +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9%)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 유보 응답은 3.2%였음

[그림6] 서울대 협력사업

[n=1,000명, 단위:%]



**응답자
특성별**

- ▶ 관악구와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 관악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남성(77.6%)과 여성(77.5%)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60대 이상(84.5%), 제3선거구(82.4%) 학생(84.9%), 5년 미만 거주자(80.0%) 집단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
- ▶ 반면에 서울대 협력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20.0%), 30대(26.6%), 제1선거구(21.9%), 기타 직업군(43.5%),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자(21.6%) 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음

**요약
및
제언**

- ▶ 관악구는 서울대와 함께 관악구 내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교육이 취약한 구역에 집중적인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표5] 서울대 협력사업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도움이 된다 ①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 다 ⑤	도움이 된다 (①+②)	도움되 지 않는다 (③+④)	잘 모르겠 다 ⑤
전체		1000	25.8	51.8	14.9	4.3	3.2	77.6	19.2	3.2
성별	남성	501	26.3	51.4	14.5	5.6	2.3	77.6	20.0	2.3
	여성	499	25.4	52.2	15.4	3.0	4.2	77.5	18.3	4.2
연령	19 ~ 29세	257	19.3	58.0	19.1	3.6	-	77.3	22.7	-
	30대	192	19.3	54.2	19.6	7.0	-	73.4	26.6	-
	40대	150	24.6	46.4	18.9	5.0	5.1	71.1	23.9	5.1
	50대	150	30.0	48.3	10.2	7.0	4.5	78.3	17.2	4.5
	60대 이상	251	35.6	48.8	7.5	0.9	7.2	84.5	8.4	7.2
권역	제1선거구	270	25.9	49.1	17.5	4.4	3.1	75.0	21.9	3.1
	제2선거구	273	25.2	50.5	13.9	6.1	4.3	75.7	20.0	4.3
	제3선거구	228	26.2	56.2	13.3	2.5	1.8	82.4	15.8	1.8
	제4선거구	229	26.1	52.0	14.6	3.8	3.5	78.1	18.4	3.5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24.6	53.2	11.6	5.8	4.9	77.7	17.4	4.9
	사무/기술직/경영/관리 /전문직	349	23.9	52.2	18.6	4.9	0.4	76.1	23.5	0.4
	기능/작업직	30	22.3	46.7	24.7	3.8	2.5	69.0	28.5	2.5
	가정주부	169	29.0	49.4	11.6	1.5	8.5	78.4	13.1	8.5
	학생	65	25.6	59.3	15.1	-	-	84.9	15.1	-
	무직	142	30.9	50.8	10.3	5.5	2.4	81.7	15.8	2.4
	기타	17	14.5	34.9	38.3	5.2	7.0	49.4	43.5	7.0
거주 기간	5년 미만	177	17.6	62.4	14.9	4.1	1.0	80.0	19.0	1.0
	5년 이상~10년 미만	129	18.8	59.0	14.7	6.9	0.5	77.9	21.6	0.5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28.4	44.6	15.7	5.7	5.7	73.0	21.3	5.7
	20년 이상	543	29.4	48.6	14.8	3.3	3.9	78.0	18.1	3.9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6. 1인 가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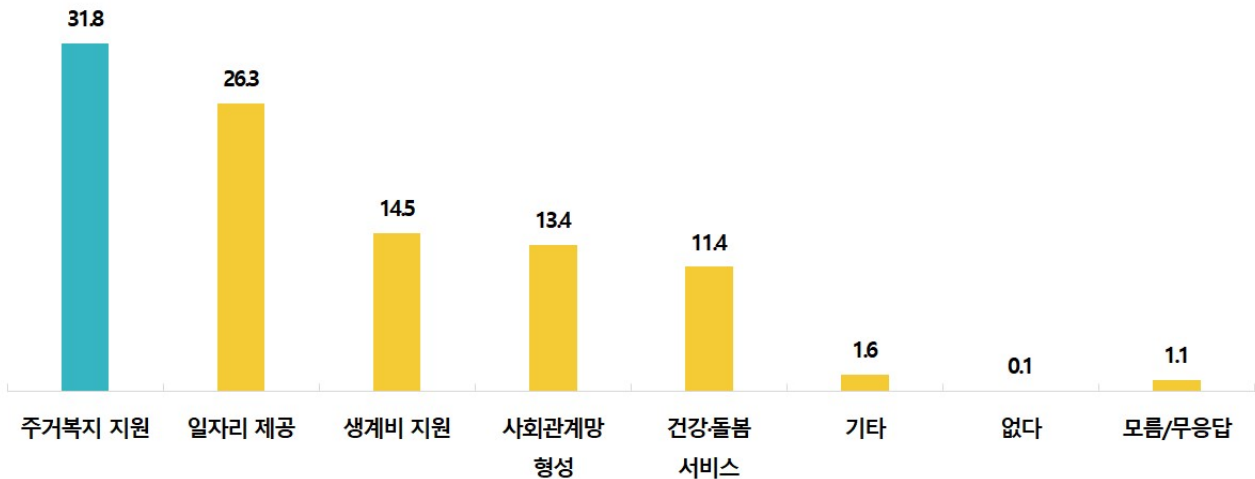
문. 관악구는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악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 1인 가구 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주거복지 지원'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제공'(26.3%), '생계비 지원'(14.5%), '사회관계망 형성'(13.4%), '건강·돌봄 서비스'(11.4%) 순으로 나타남
- ▶ 기타 의견으로 '안전 문제', '치안 문제', '주거환경 개선', '문화생활 정책', '1인 가구 세금 인하 정책', '대중교통 확대' 등이 있었음

[그림기] 1인 가구 정책

[n=1,00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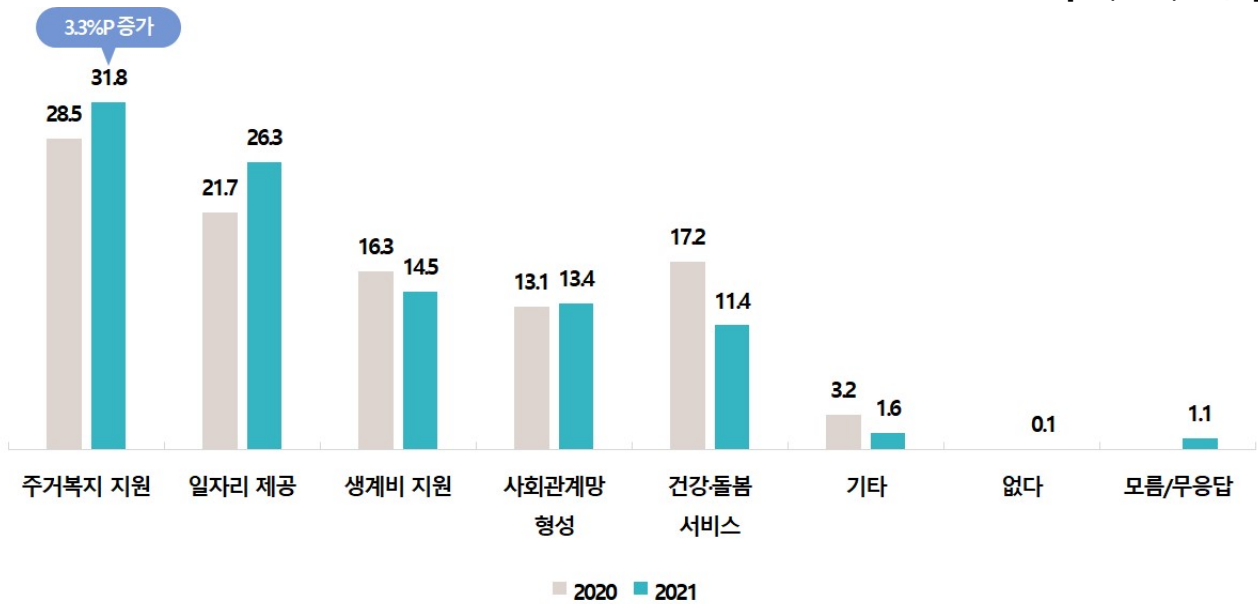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인 가구 정책을 '주거복지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6.6%), 30대(47.4%), 제1선거구(35.5%),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종사자(42.1%),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자(45.1%) 집단에서 다소 높았음
- ▶ 다음으로 높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비율은 남성(30.4%), 50대(38.1%), 제4선거구(30.3%), 기능/작업직 종사자(34.7%), 20년 이상 거주자(31.4%) 집단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8] 1인 가구 정책 연도별 비교

[n=1,000명, 단위:%]



연도별
응답
비율

- ▶ 2020년 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 전년도와 금년도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인 가구 정책으로 '주거복지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해 3.3%p(28.5% → 31.8%) 증가하였음. '일자리 제공'이라는 응답은 4.6%p(21.7% →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및
제언

- ▶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58.1%로 매우 높은 편이며 청년 인구 비율은 40.6%임. 이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 주거취약계층 방역사업,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음. 청년 주거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소외된 노년층을 위한 정책 확대를 모색해야 함

요약
및
제언

- ▶ 관악구는 교통의 중심지라 학생, 직장인, 여성 1인가구가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최근 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점검 필요. 내년도 정부예산 관련 청년월세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 지원 기준 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 고시촌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도 필요함

[표6] 1인 가구 정책

단위 : %		사례수 (명)	주거 복지 지원	일자리 제공	생계비 지원	사회관 계망 형성	건강· 돌봄 서비스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1000	31.8	26.3	14.5	13.4	11.4	1.6	0.1	1.1
성별	남성	501	27.0	30.4	17.0	12.7	10.0	1.1	0.3	1.3
	여성	499	36.6	22.2	11.9	14.0	12.7	1.6	-	0.9
연령	19 ~ 29세	257	38.8	15.4	23.3	13.5	6.4	2.5	-	-
	30대	192	47.4	14.0	15.6	15.8	5.8	1.6	-	-
	40대	150	35.0	29.8	10.9	14.3	8.8	-	-	1.2
	50대	150	20.3	38.1	8.2	16.2	13.9	0.7	-	2.6
	60대 이상	251	17.7	37.8	10.4	9.2	20.6	1.5	0.5	2.3
권역	제1선거구	270	35.5	25.3	16.9	10.2	10.2	0.3	0.3	1.4
	제2선거구	273	29.2	26.1	13.7	13.9	13.9	2.4	-	0.9
	제3선거구	228	33.4	23.7	11.2	15.5	13.1	1.5	0.3	1.2
	제4선거구	229	29.0	30.3	15.8	14.4	8.0	1.4	-	1.1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29.8	33.3	10.8	13.4	9.8	0.6	-	2.3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349	42.1	18.3	15.2	14.4	7.7	2.3	-	-
	기능/작업직	30	28.3	34.7	16.1	10.1	10.9	-	-	-
	가정주부	169	22.5	33.3	9.8	13.8	18.7	-	-	1.9
	학생	65	38.4	16.7	19.4	16.8	7.4	1.4	-	-
	무직	142	19.3	30.0	21.1	8.9	15.9	1.9	1.0	2.0
	기타	17	27.4	20.1	17.0	18.8	11.4	5.4	-	-
거주기간	5년 미만	177	42.5	17.1	23.6	11.4	5.4	-	-	-
	5년 이상~10년 미만	129	45.1	14.3	21.2	14.0	4.7	0.7	-	-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28.0	29.2	14.0	16.5	8.2	1.0	-	3.0
	20년 이상	543	26.2	31.4	10.0	13.0	15.7	1.9	0.3	1.3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7. 범죄 없는 안전도시 - 안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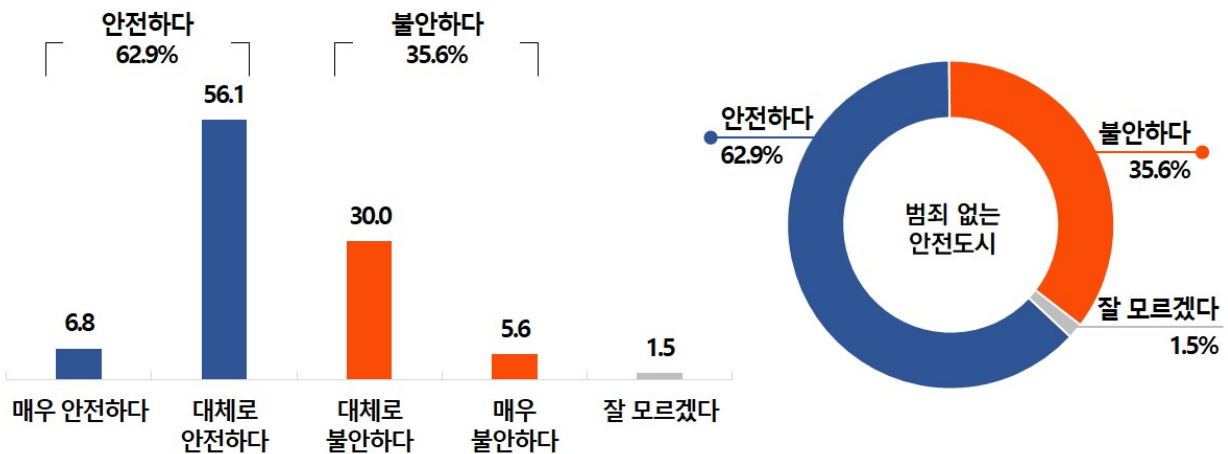
문. 관악구에서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현재 안전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사
결과**

▶ 관악구민에게 관악구 안전 수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안전하다는 응답이 62.9%(매우 안전하다 6.8% + 대체로 안전하다 56.1%)로 나타났으며 불안하다는 응답은 35.6%(매우 불안하다 5.6% + 대체로 불안하다 30.0%)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1.5%임

[그림9] 범죄 없는 안전도시 - 안전 수준

[n=1,000명, 단위:%]



**응답자
특성별**

- ▶ 관악구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73.4%), 40대(69.6%), 제2선거구(70.5%), 무직(70.9%), 20년 이상 거주자(63.7%)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 반면 관악구 안전 수준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여성(45.2%), 19~29세(42.8%), 제1선거구(41.0%), 학생(47.8%), 10년 이상~20년 미만 거주자(38.8%)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요약
및
제언**

- ▶ 조사 결과 관악구의 안전 수준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집단은 여성, 19~29세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남. CCTV 설치, 가로등 조도 개선 및 범죄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야 함

[표기] 범죄 없는 안전도시 - 안전 수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안전하 다 ①	대체로 안전하 다 ②	대체로 불안하 다 ③	매우 불안하 다④	잘 모르겠 다 ⑤	안전하 다 (①+②)	불안하 다 (③+④)	잘 모르겠 다 ⑤
전 체		1000	6.8	56.1	30.0	5.6	1.5	62.9	35.6	1.5
성별	남성	501	8.2	65.2	20.5	5.6	0.5	73.4	26.1	0.5
	여성	499	5.4	46.9	39.6	5.6	2.5	52.3	45.2	2.5
연령	19 ~ 29세	257	7.6	49.7	34.2	8.5	-	57.2	42.8	-
	30대	192	4.2	53.6	36.3	5.8	-	57.9	42.1	-
	40대	150	6.0	63.6	24.5	5.9	-	69.6	30.4	-
	50대	150	5.9	63.4	24.2	3.3	3.2	69.3	27.5	3.2
	60대 이상	251	8.9	55.7	27.7	3.7	4.0	64.7	31.4	4.0
권역	제1선거구	270	4.5	54.3	35.1	5.9	0.3	58.7	41.0	0.3
	제2선거구	273	10.0	60.4	22.7	5.4	1.5	70.5	28.0	1.5
	제3선거구	228	6.4	53.5	32.9	4.8	2.5	59.9	37.6	2.5
	제4선거구	229	6.1	55.7	30.0	6.3	1.9	61.8	36.4	1.9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6.8	61.9	24.2	6.5	0.6	68.7	30.7	0.6
	사무/기술직/경영/관리 /전문직	349	4.8	53.9	34.6	6.7	-	58.7	41.3	-
	기능/작업직	30	17.7	53.1	10.9	12.3	6.0	70.8	23.2	6.0
	가정주부	169	7.3	52.7	32.2	2.8	5.0	60.0	35.0	5.0
	학생	65	4.6	47.6	39.1	8.7	-	52.2	47.8	-
	무직	142	10.7	60.1	25.8	1.1	2.2	70.9	26.9	2.2
	기타	17	-	60.9	26.8	12.2	-	60.9	39.1	-
거주 기간	5년 미만	177	6.0	57.0	30.3	6.8	-	63.0	37.0	-
	5년 이상~10년 미만	129	7.3	56.1	29.8	6.8	-	63.4	36.6	-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7.9	51.4	29.2	9.6	1.9	59.3	38.8	1.9
	20년 이상	543	6.6	57.1	30.2	3.8	2.2	63.7	34.1	2.2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8. 범죄 없는 안전도시 - 추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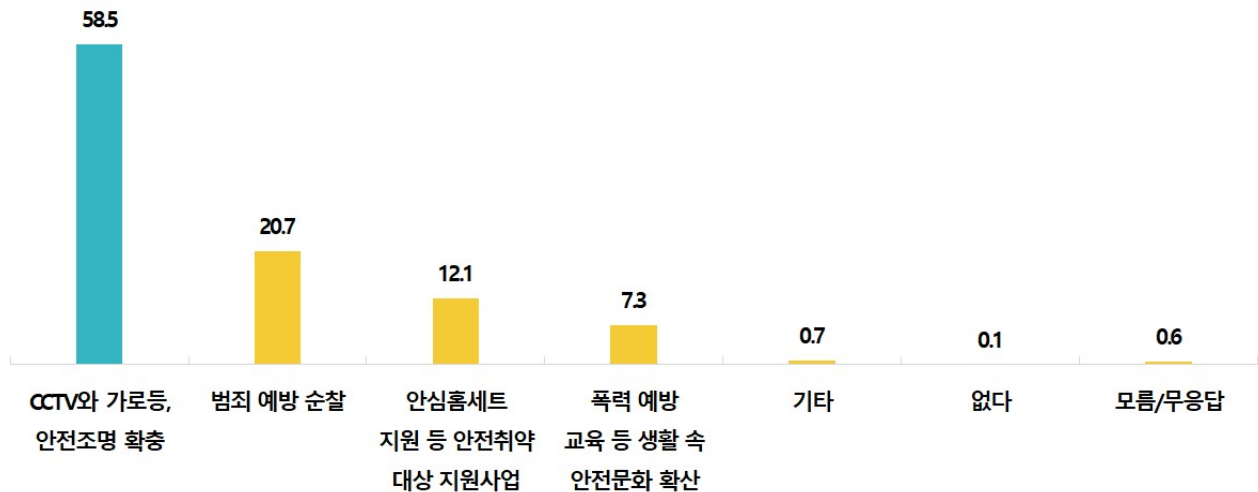
문. 관악구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 관악구민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CCTV와 가로등, 안전조명 확충'(58.5%)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범죄 예방 순찰'(20.7%), '안심홈세트 지원 등 안전취약 대상 지원사업'(12.1%), '폭력 예방 교육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7.3%) 순으로 응답함
- ▶ 기타 응답으로 '중국어 집중 단속', '유흥업소 단속', '구민과 경찰이 상생하는 사업' '성범죄자 전입신고 안 받는 방법' 등이 있었음

[그림10] 범죄 없는 안전도시 - 추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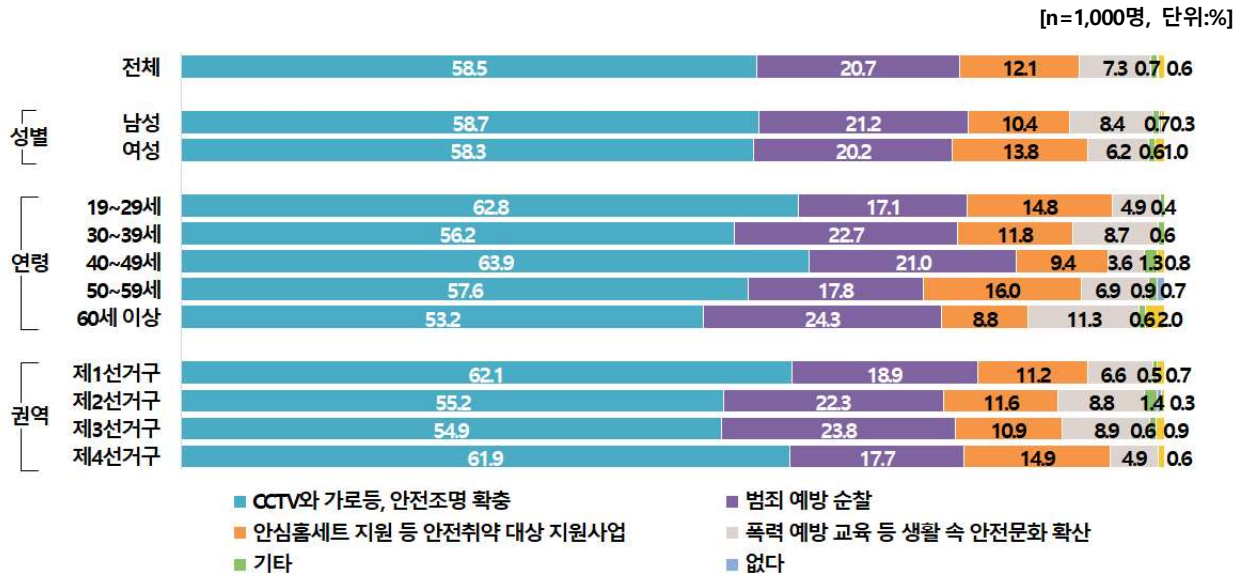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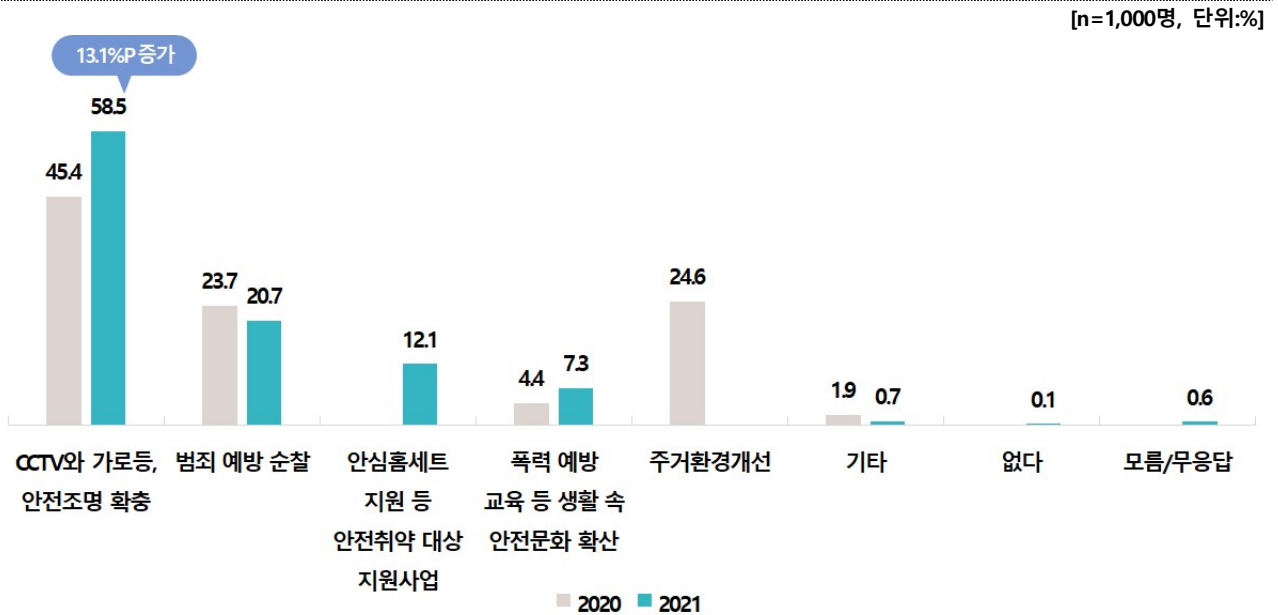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안전한 도시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CCTV와 가로등, 안전조명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58.7%), 40대(63.9%), 제1선거구(62.1%), 기타 직업군(64.6%), 5년 미만 거주자(71.0%) 집단에서 높았음
- ▶ 다음으로 '범죄 예방 순찰'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남성(21.2%), 60대 이상(24.3%), 제3선거구(23.8%), 무직(26.8%),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자(24.2%)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

[그림11] 범죄 없는 안전도시 - 추진 사업 응답자별 특성



[그림12] 범죄 없는 안전도시 - 추진사업 연도별 비교



요약 및 제언

- ▶ 2020년 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 전년도와 금년도 조사에서 안전한 도시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CCTV와 가로등, 안전조명 확충’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13.1%p(45.4% → 58.5%) 증가하였음
- ▶ 주민들의 CCTV 및 가로등 설치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악구는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 CCTV 추가 설치, 안심골목길 조성, 보안등 신설 등 여러 사업을 추진 중임. 지역별로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범죄율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범죄 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함

[표8] 범죄 없는 안전 도시 - 추진 사업

단위 : %		사례수 (명)	CCTV 와 가로등, 안전명 확충	범죄 예방 순찰	안심 홈 세트 지원 등 안전 취약 대상 지역 대상 사업	폭력 예방 등 교육 생활 속 안전 문화 확산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1000	58.5	20.7	12.1	7.3	0.7	0.1	0.6
성별	남성	501	58.7	21.2	10.4	8.4	0.7	0.2	0.3
	여성	499	58.3	20.2	13.8	6.2	0.6	-	1.0
연령	19~29세	257	62.8	17.1	14.8	4.9	0.4	-	-
	30대	192	56.2	22.7	11.8	8.7	0.6	-	-
	40대	150	63.9	21.0	9.4	3.6	1.3	-	0.8
	50대	150	57.6	17.8	16.0	6.9	0.9	0.7	-
	60대 이상	251	53.2	24.3	8.8	11.3	0.6	-	2.0
권역	제1선거구	270	62.1	18.9	11.2	6.6	0.5	-	0.7
	제2선거구	273	55.2	22.3	11.6	8.8	1.4	0.4	0.3
	제3선거구	228	54.9	23.8	10.9	8.9	0.6	-	0.9
	제4선거구	229	61.9	17.7	14.9	4.9	-	-	0.6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58.8	23.7	10.5	5.6	0.6	-	0.8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349	60.1	20.3	13.2	5.9	0.5	-	-
	기능/작업직	30	63.8	15.6	12.5	8.1	-	-	-
	가정주부	169	57.5	17.6	12.8	10.5	-	-	1.7
	학생	65	64.0	11.8	15.2	7.6	1.4	-	-
	무직	142	51.1	26.8	9.0	9.4	1.8	0.8	1.0
	기타	17	64.6	10.3	14.8	10.2	-	-	-
거주기간	5년 미만	177	71.0	13.1	11.3	4.6	-	-	-
	5년 이상~10년 미만	129	55.4	24.2	16.0	2.9	-	-	1.4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57.0	22.9	9.9	8.9	0.9	-	0.5
	20년 이상	543	55.6	21.7	12.0	8.9	1.0	0.2	0.7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9. 교통인프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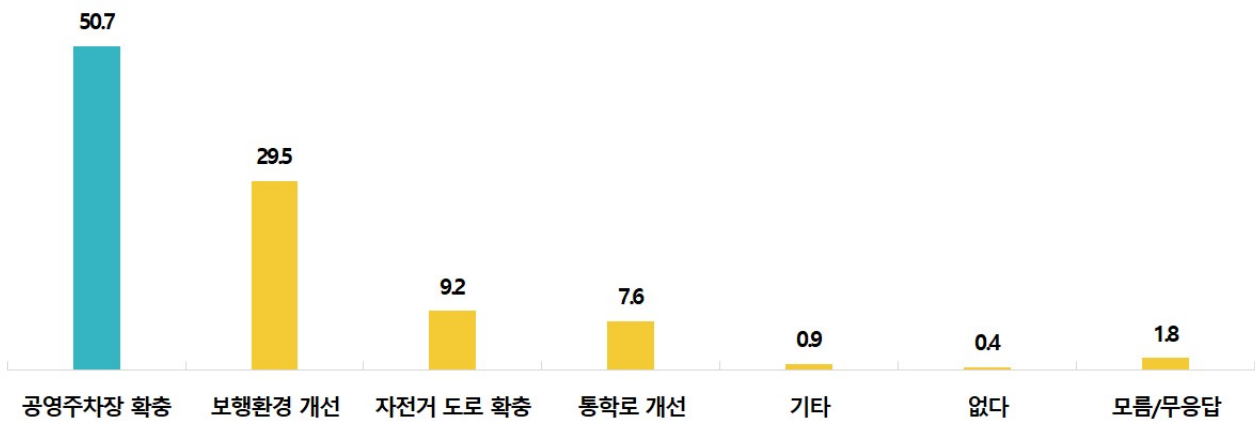
문. 관악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 관악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50.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행환경 개선'(29.5%), '자전거 도로 확충'(9.2%), '통학로 개선'(7.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기타 의견으로 '오토바이 단속', '전동 킥보드 단속', '버스노선 확충', '경전철 개통' 등이 있었음

[그림13] 교통인프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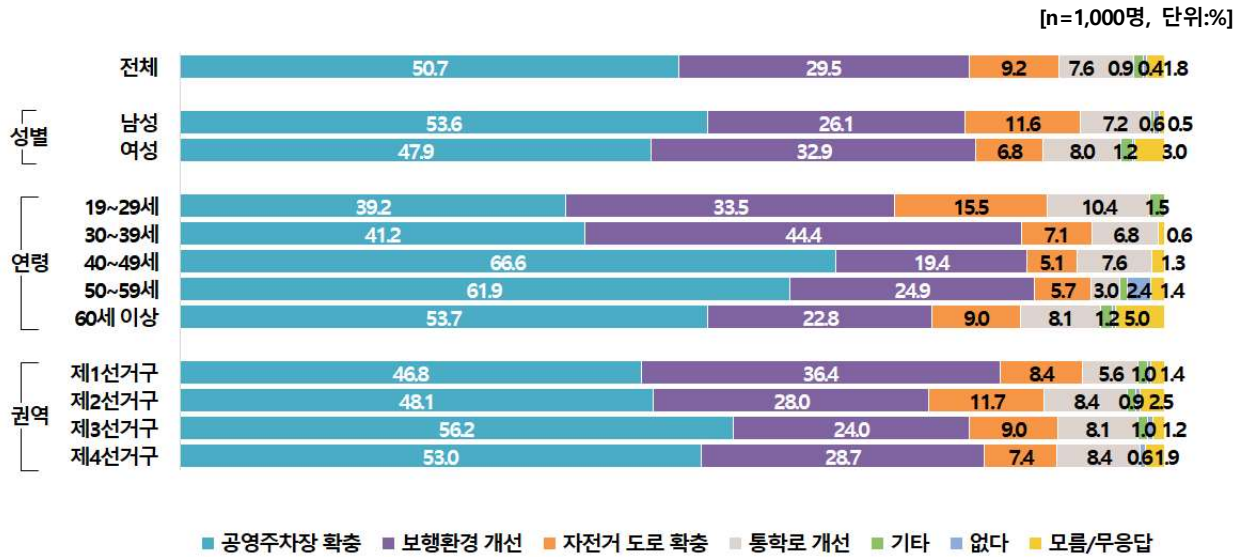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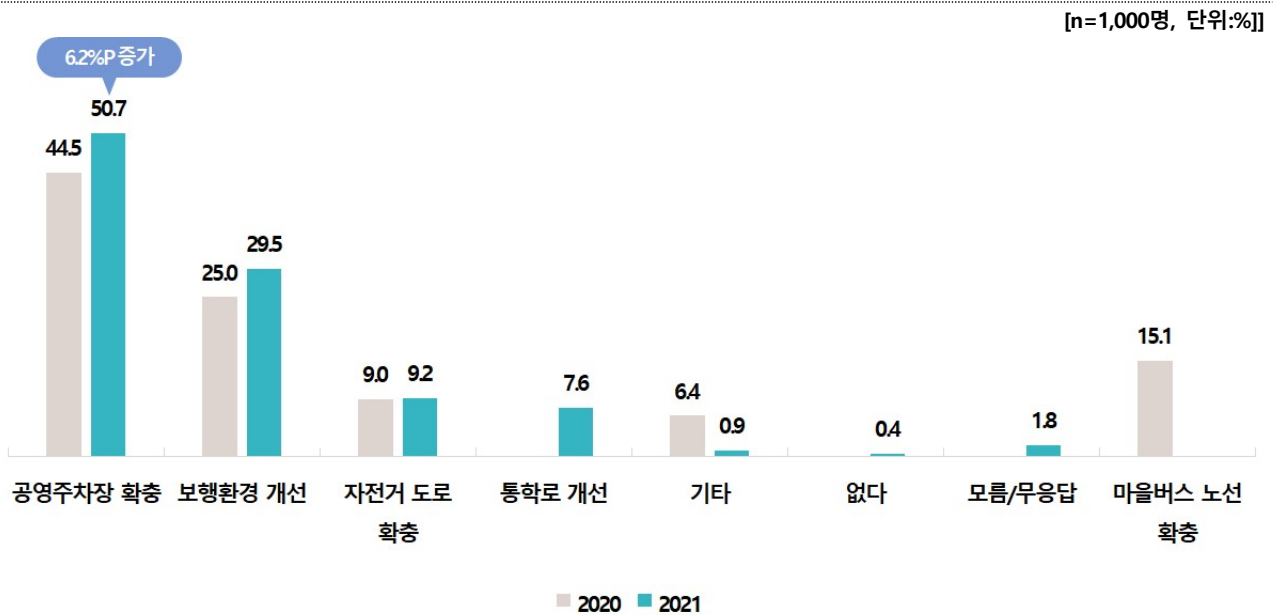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관악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을 선택한 비율은 남성(53.6%), 40대(66.6%), 제3선거구(56.2%), 기타 직업군(71.8%), 10년 이상~20년 미만 거주자(58.3%)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보행환경 개선'의 비율은 여성(32.9%), 30대(44.4%), 제1선거구(36.4%),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종사자(37.4%), 5년 미만 거주자(38.7%)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다소 높았음

[그림14] 교통 인프라 정책 응답자별 특성



[그림15] 교통 인프라 정책 연도별 비교



요약
및
제언

- ▶ 관악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전년도와 금년도 모두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6.2%p(44.5%→50.7%) 증가하였음.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응답은 4.5%p(25.0%→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관악구민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악구는 유희 주차장 개방, 공영주차장 설립을 추진하며 주차장을 확보해왔으나 구민들의 수요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보임. 주택가, 재래시장 인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공유주차장 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9] 교통인프라 정책

단위 : %		사례수 (명)	공영주 차장 확충	보행 환경 개선	자전거 도로 확충	통학로 개선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1000	50.7	29.5	9.2	7.6	0.9	0.4	1.8
성별	남성	501	53.6	26.1	11.6	7.2	0.3	0.6	0.5
	여성	499	47.9	32.9	6.8	8.0	1.2	0.2	3.0
연령	19~29세	257	39.2	33.5	15.5	10.4	1.5	-	-
	30대	192	41.2	44.4	7.1	6.8	-	-	0.6
	40대	150	66.6	19.4	5.1	7.6	-	-	1.3
	50대	150	61.9	24.9	5.7	3.0	0.7	2.4	1.4
	60대 이상	251	53.7	22.8	9.0	8.1	1.2	0.3	5.0
권역	제1선거구	270	46.8	36.4	8.4	5.6	1.0	0.3	1.4
	제2선거구	273	48.1	28.0	11.7	8.4	0.9	0.4	2.5
	제3선거구	228	56.2	24.0	9.0	8.1	1.0	0.5	1.2
	제4선거구	229	53.0	28.7	7.4	8.4	-	0.6	1.9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64.7	24.7	5.2	3.8	0.9	0.5	0.3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349	43.2	37.4	11.7	5.7	0.5	0.7	0.9
	기능/작업직	30	51.5	19.5	20.8	2.2	-	-	6.0
	가정주부	169	55.8	23.8	4.8	10.1	0.5	-	5.1
	학생	65	34.2	27.9	12.9	22.2	2.8	-	-
	무직	142	45.7	27.7	11.8	10.9	1.0	0.5	2.5
	기타	17	71.8	28.2	-	-	-	-	-
거주기간	5년 미만	177	38.8	38.7	14.1	8.4	-	-	-
	5년 이상~10년 미만	129	48.8	34.7	8.3	6.5	0.7	0.9	-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58.3	22.9	9.3	6.1	0.5	-	2.8
	20년 이상	543	53.0	27.1	7.8	8.0	1.0	0.6	2.5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10. 별빛내린천(도림천) 특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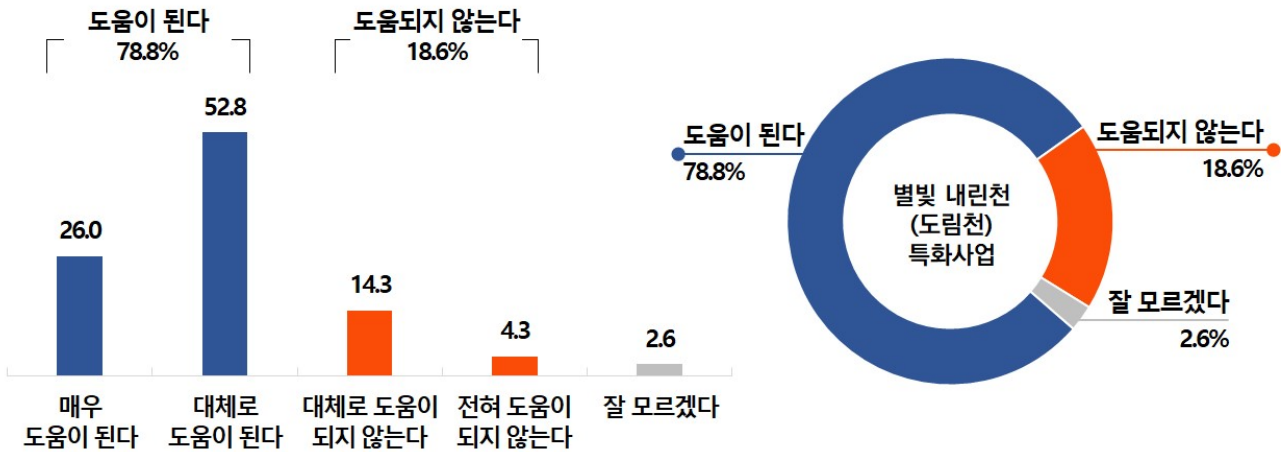
문. 관악구는 도림천을 '별빛내린천'으로 이름짓고 야간 경관 개선, 벽천분수 설치 등 차별화된 힐링 공간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들 사업이 관악구 생활환경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조사 결과

- ▶ 별빛내린천(도림천) 특화사업에 대해 관악구민의 78.8%가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26.0% + 대체로 도움이 된다 52.8%)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3% +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3%)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6%임

[그림 16] 별빛내린천(도림천) 특화사업

[n=1,000명, 단위:%]



응답자 특성별

- ▶ 별빛내린천(도림천) 특화사업이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80.1%), 19~29세(81.3%), 제4선거구(83.0%), 무직(80.4%),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자(81.0%)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편이었음
- ▶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21.3%), 40대(23.7%), 제2선거구(21.3%), 기타 직업군(22.6%), 5년 미만 거주자(21.0%)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요약 및 제언

- ▶ 전년도 조사에서 별빛내린천 명소화를 위해 해야 할 일 1순위는 '산책로(36.6%) 개선'인 것으로 나타남
- ▶ 관악구는 별빛내린천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마련하는 등 별빛내린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관악구 별빛내린천 힐링걷기대회 등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함
- ▶ 구민들의 수요에 따른 공간 개선 및 콘텐츠 발굴이 필요함

[표10] 별빛내린천(도림천) 특화사업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도움이 된다 ①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 다 ⑤	도움이 된다 (①+②)	도움되 지 않는다 (③+④)	잘 모르겠 다 ⑤
전 체		1000	26.0	52.8	14.3	4.3	2.6	78.8	18.6	2.6
성별	남성	501	29.9	47.6	16.0	5.3	1.2	77.5	21.3	1.2
	여성	499	22.1	58.0	12.7	3.2	4.0	80.1	15.9	4.0
연령	19~29세	257	16.2	65.1	16.8	1.9	-	81.3	18.7	-
	30대	192	23.3	55.7	17.4	3.6	-	79.0	21.0	-
	40대	150	30.6	44.9	15.3	8.4	0.8	75.5	23.7	0.8
	50대	150	34.3	42.0	13.4	5.7	4.6	76.3	19.1	4.6
	60대 이상	251	30.3	49.1	9.4	3.9	7.2	79.4	13.4	7.2
권역	제1선거구	270	27.6	52.4	14.1	3.5	2.4	80.0	17.5	2.4
	제2선거구	273	17.5	56.7	14.8	6.6	4.5	74.2	21.3	4.5
	제3선거구	228	27.8	50.8	13.6	5.4	2.4	78.6	19.0	2.4
	제4선거구	229	32.4	50.6	14.8	1.4	0.8	83.0	16.2	0.8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23.7	53.7	14.0	7.2	1.5	77.4	21.1	1.5
	사무/기술직/경영/관리 /전문직	349	24.5	53.7	17.2	3.5	1.1	78.2	20.7	1.1
	기능/작업직	30	29.4	49.9	15.9	2.4	2.4	79.3	18.3	2.4
	가정주부	169	28.3	51.7	11.4	1.8	6.8	79.9	13.2	6.8
	학생	65	24.4	55.5	17.2	2.8	-	79.9	20.1	-
	무직	142	32.0	48.4	9.5	5.4	4.7	80.4	14.9	4.7
	기타	17	14.4	63.0	17.4	5.2	-	77.4	22.6	-
거주 기간	5년 미만	177	17.2	60.8	18.0	3.0	1.1	77.9	21.0	1.1
	5년 이상~10년 미만	129	22.0	59.0	17.6	0.9	0.6	81.0	18.4	0.6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26.8	51.3	13.6	4.7	3.7	78.1	18.2	3.7
	20년 이상	543	29.6	49.1	12.6	5.4	3.3	78.7	18.0	3.3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11. 쓰레기 배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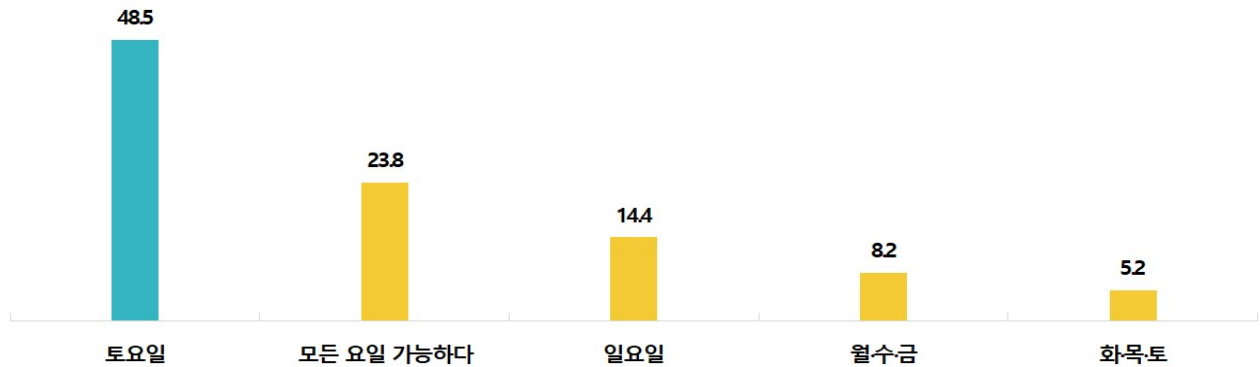
문. 관악구 주거지역의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되는 요일은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조사 결과

- ▶ 관악구민의 48.5%가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되는 요일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요일 가능하다'(28.8%), '일요일'(14.4%), '월·수·금'(8.2%), '화·목·토'(5.2%) 순으로 응답함

[그림17] 쓰레기 배출일

[n=1,000명, 단위:%]



응답자 특성별

- ▶ 쓰레기 배출일 인지도가 높은 집단은 여성(51.0%), 40대(61.3%), 제3선거구(53.6%), 가정주부(59.8%), 20년 이상 거주자(53.6%)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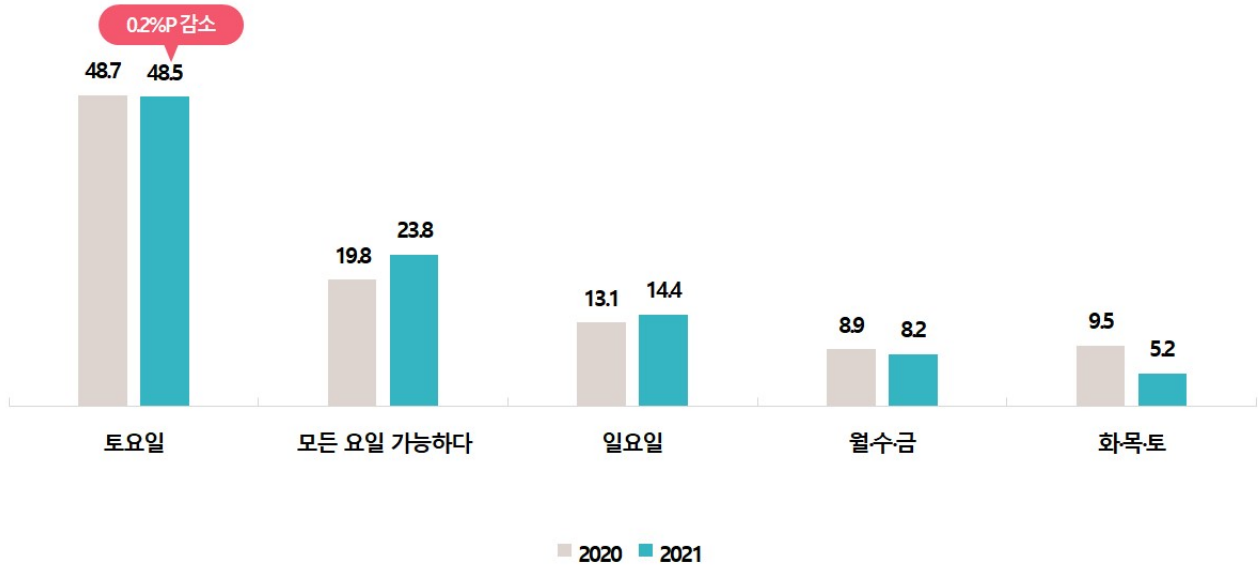
좌담회 참석자 발언

- ▶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다세대나 빌라촌의 경우 담배꽁초가 매일매일 눈오듯 쌓여요. 집안에서는 피우기 그래서인지 집 밖 공터나 골목에서 담배들을 피우는데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도 없고 정말 환경에 안 좋습니다"
- ▶ "구에서 금연운동을 벌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데 요새 노담 광고도 나오는데, 공익적 캠페인이 필요해요"

[5060대 주부층]

[그림18] 쓰레기 배출일 인지도 전년도와 비교

[n=1,000명, 단위:%]



연도별
응답
비율

- ▶ 관악구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되는 요일을 '토요일'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주민은 0.2%p(48.7%→4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모든 요일 가능하다'는 응답이 4.0%p(19.8%→23.8%), '일요일'이라는 응답이 1.3%p(13.1% → 14.4%) 증가했는데 쓰레기 배출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여전히 절반이 안되는 상황임

요약
및
제언

- ▶ 조사 결과 '토요일'로 맞게 응답한 집단은 연령별로 볼 때 19~29세가 28.8%, 거주기간별로 볼 때 5년 미만 거주자가 37.4%로 다른 집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거주기간이 짧은 젊은 층의 쓰레기 배출일 인지도가 낮은 편임
- ▶ 쓰레기 배출일과 더불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 찾아가는 분리배출 체험 교실 운영 등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에 대한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11] 쓰레기 배출일

단위 : %		사례수 (명)	토요일	모든 요일 가능하다	일요일	월·수·금	화·목·토
전 체		1000	48.5	23.8	14.4	8.2	5.2
성별	남성	501	45.9	26.4	11.8	10.2	5.8
	여성	499	51.0	21.1	17.0	6.3	4.5
연령	19~29세	257	28.8	30.6	21.7	12.2	6.6
	30대	192	44.3	26.0	15.6	7.7	6.5
	40대	150	61.3	19.6	12.2	4.3	2.7
	50대	150	54.8	21.4	10.1	7.7	6.0
	60대 이상	251	60.3	18.9	10.0	7.2	3.7
권역	제1선거구	270	50.8	23.8	12.6	7.4	5.4
	제2선거구	273	46.3	25.2	17.3	9.1	2.1
	제3선거구	228	53.6	17.8	15.8	7.6	5.3
	제4선거구	229	43.2	27.9	11.7	8.7	8.5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58.8	16.6	13.7	6.5	4.5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349	39.3	30.5	14.6	9.3	6.5
	기능/작업직	30	52.9	17.7	13.3	16.1	-
	가정주부	169	59.8	18.9	11.7	3.9	5.8
	학생	65	25.4	31.0	24.4	12.5	6.6
	무직	142	50.0	22.1	15.1	10.6	2.2
	기타	17	53.1	27.2	5.4	4.0	10.3
거주기간	5년 미만	177	37.4	32.8	18.5	8.3	2.9
	5년 이상~10년 미만	129	46.6	22.3	19.5	5.5	6.1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44.6	25.3	14.2	9.2	6.7
	20년 이상	543	53.6	20.7	11.9	8.6	5.3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12. 주민 소통채널 구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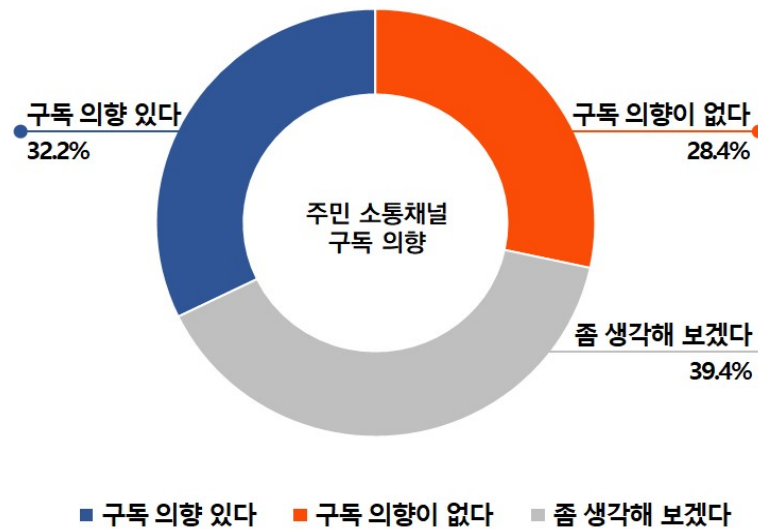
문. 관악구에서는 구정 주요 소식을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한 카카오토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소통 채널을 구독할 의향이 있습니까?

조사 결과

- ▶ 관악구민에게 주민 소통채널 구독 의향을 물어본 결과, '구독 의향 있다'는 32.2%, '구독 의향 없다'는 28.4%로 구독 의향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음. '좀 생각해 보겠다'는 유보 응답은 39.4%임

[그림19] 주민 소통채널 구독 의향

[n=1,000명, 단위:%]



응답자 특성별

- ▶ 관악구 주민 소통채널을 구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34.2%), 50대(37.3%), 제1선거구(34.8%), 사무/기술/경영/관리/전문직 종사자(36.3%), 5년 미만 거주자(35.2%)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 ▶ 주민 소통채널을 구독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29.5%), 60대 이상(38.6%), 제2선거구(30.2%), 무직(35.7%), 20년 이상 거주자(30.6%) 집단에서 다소 높았음

요약 및 제언

- ▶ 관악구는 공식 SNS, 온라인 관악청, 관악소리를 중심으로 구민들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해 왔음. 관악구 정책 홍보뿐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구독 의향을 높여가야 함

[표12] 주민 소통채널 구독 의향

단위 : %		사례수 (명)	구독 의향 있다	구독 의향이 없다	좀 생각해 보겠다
전 체		1000	32.2	28.4	39.4
성별	남성	501	34.2	27.3	38.5
	여성	499	30.1	29.5	40.4
연령	19 ~ 29세	257	32.4	23.4	44.1
	30대	192	36.7	21.2	42.1
	40대	150	30.5	27.0	42.5
	50대	150	37.3	30.6	32.1
	60대 이상	251	26.4	38.6	35.1
권역	제1선거구	270	34.8	28.7	36.5
	제2선거구	273	30.1	30.2	39.7
	제3선거구	228	32.5	24.6	42.9
	제4선거구	229	31.2	29.7	39.2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35.8	29.1	35.1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349	36.3	23.6	40.1
	기능/작업직	30	34.2	31.5	34.3
	가정주부	169	29.0	31.7	39.3
	학생	65	22.0	27.4	50.5
	무직	142	27.0	35.7	37.3
	기타	17	9.5	22.6	67.9
거주기간	5년 미만	177	35.2	28.6	36.2
	5년 이상~10년 미만	129	30.5	22.1	47.4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35.2	25.5	39.3
	20년 이상	543	30.7	30.6	38.6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13. 스마트도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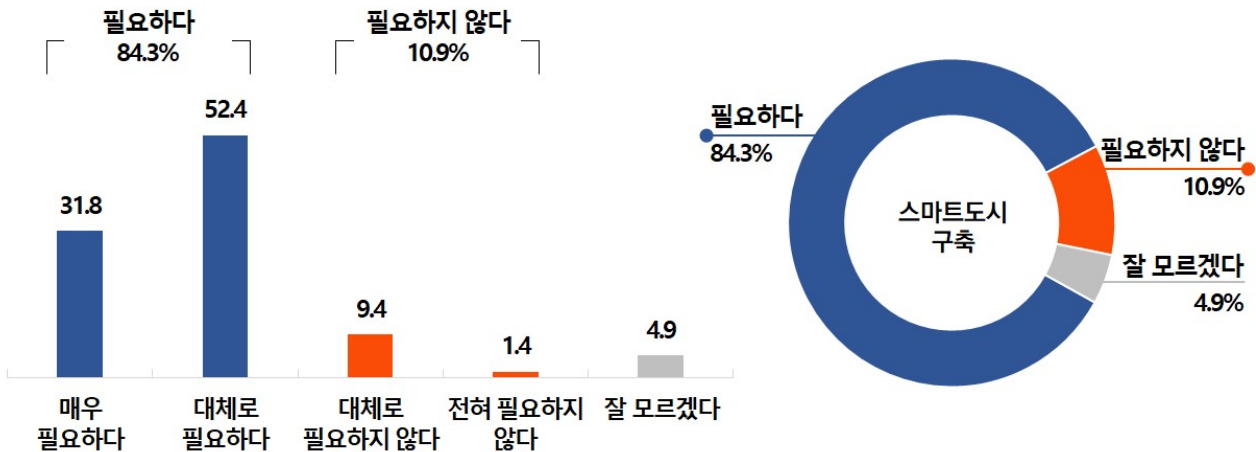
문. 관악구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 신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도시발전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관악구의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3%(매우 필요하다 31.8% + 대체로 필요하다 52.4%)로 높은 편이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9%(전혀 필요하지 않다 1.4%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9.4%)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4.9%임

[그림20] 스마트도시 구축

[n=1,000명, 단위:%]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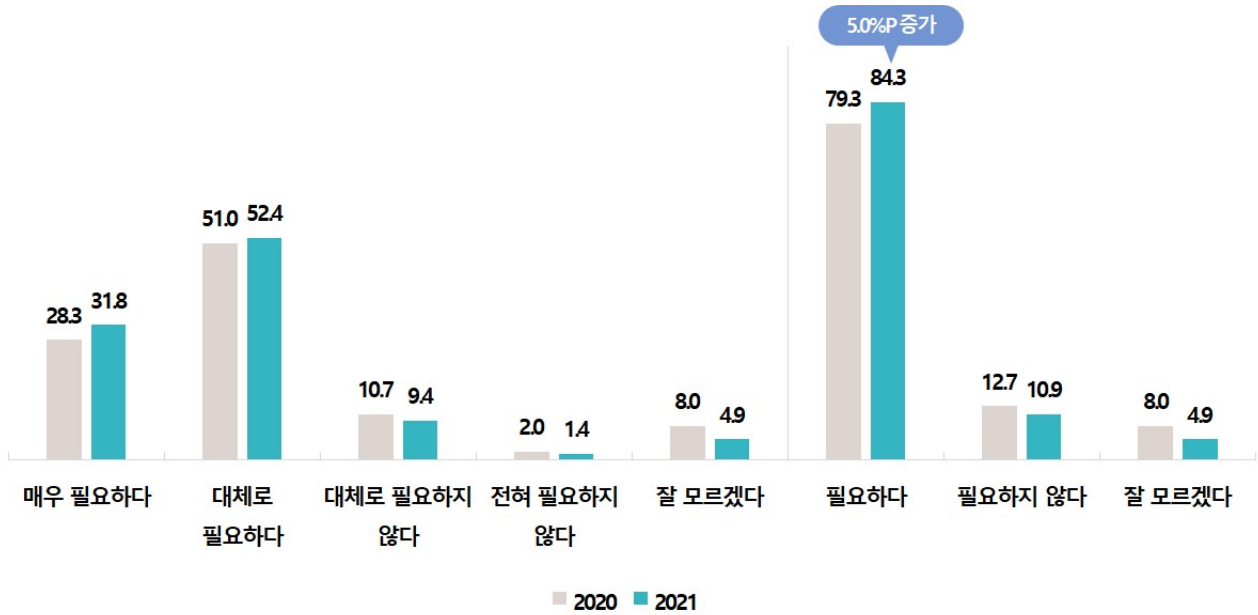
- ▶ 스마트도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85.1%), 30대(90.9%), 제3선거구(85.9%), 학생(91.4%),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자(91.6%) 집단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 ▶ 반면 스마트도시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은 남성(11.1%), 40대(15.2%), 제2선거구(12.4%), 기능/작업직 종사자(14.7%), 5년 미만 거주자(13.0%)인 것으로 나타남

**좌담회
참석자
발 언**

▶ "구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2040대 학생·주부층]

[그림21] 스마트도시 구축 연도별 비교

[n=1,000명, 단위:%]



**연도별
응답
비율**

▶ 관악구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필요하다’ 는 응답은 전년도 대비 5.0%p(79.3% → 84.3%) 증가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요구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요약
및
제언**

- ▶ AI, IoT, 메타버스 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시 문제를 현대 기술과 연계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음
- ▶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생활밀접 도시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및 여성안전특별도시를 위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등 관악구의 특화사업 발굴 및 지속 홍보 강화
- ▶ 관악구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수립과 관련 연차별 계획에 맞는 추진과 홍보 필요



[표13] 스마트도시 구축 비교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 다 ①	대체로 필요하 다 ②	대체로 필요하 지 않다 ③	전혀 전혀 필요하 지 않다 ④	잘 모르겠 다 ⑤	필요하 다 (①+②)	필요하 지 않다 (③+④)	잘 모르겠 다 ⑤
전 체		1000	31.8	52.4	9.4	1.4	4.9	84.3	10.9	4.9
성별	남성	501	34.8	50.3	9.8	1.3	3.8	85.1	11.1	3.8
	여성	499	28.8	54.6	9.1	1.6	5.9	83.4	10.6	5.9
연령	19~29세	257	26.3	64.4	8.5	0.7	-	90.8	9.2	-
	30대	192	30.5	60.4	7.2	1.9	-	90.9	9.1	-
	40대	150	34.3	47.4	13.2	2.1	3.1	81.6	15.2	3.1
	50대	150	39.7	40.4	10.4	1.4	8.0	80.1	11.9	8.0
	60대 이상	251	32.3	44.3	9.3	1.4	12.7	76.6	10.7	12.7
권역	제1선거구	270	29.7	55.6	9.4	1.5	3.8	85.3	10.9	3.8
	제2선거구	273	30.7	51.8	9.8	2.7	5.1	82.5	12.4	5.1
	제3선거구	228	32.4	53.5	7.4	0.7	6.0	85.9	8.2	6.0
	제4선거구	229	35.1	48.4	11.1	0.6	4.8	83.5	11.7	4.8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36.1	45.8	11.1	1.4	5.6	81.9	12.5	5.6
	사무/기술직/경영/관리 /전문직	349	29.7	59.9	8.5	1.1	0.8	89.6	9.5	0.8
	기능/작업직	30	21.6	50.5	12.4	2.4	13.2	72.1	14.7	13.2
	가정주부	169	31.4	46.1	10.5	1.1	11.0	77.5	11.5	11.0
	학생	65	38.4	53.0	8.6	-	-	91.4	8.6	-
	무직	142	31.1	50.6	8.2	2.8	7.3	81.7	11.0	7.3
	기타	17	21.7	67.8	5.3	5.2	-	89.5	10.5	-
거주 기간	5년 미만	177	29.9	55.9	10.9	2.1	1.2	85.8	13.0	1.2
	5년 이상~10년 미만	129	26.1	65.5	7.0	0.9	0.5	91.6	7.9	0.5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34.4	48.6	9.6	0.6	6.9	83.0	10.1	6.9
	20년 이상	543	33.1	49.3	9.5	1.6	6.5	82.4	11.1	6.5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14. 민선7기 4년차 성과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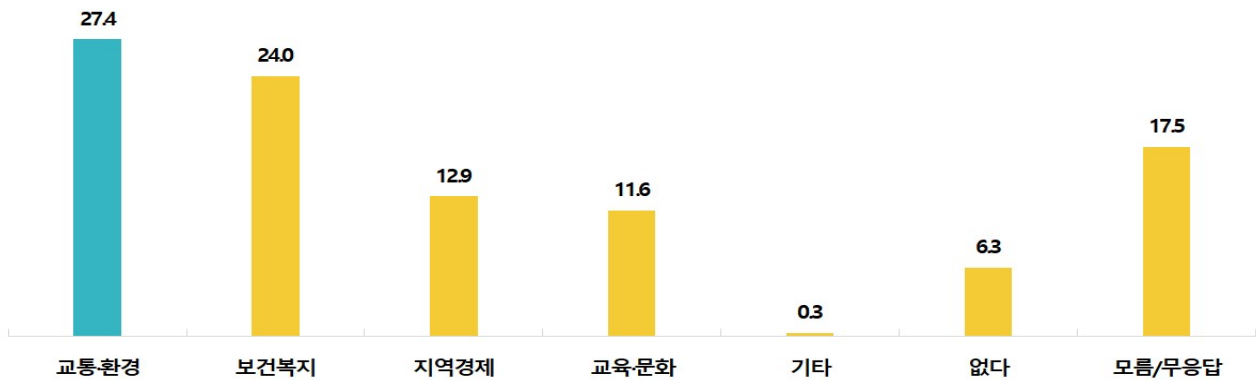
문. 2021년은 민선7기 4년차로 공약 이행률 87.4%(2021. 2분기 기준)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민선7기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 관악구민이 생각하는 민선7기 4년차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교통·환경'(27.4%)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보건복지'(24.0%), '지역경제'(12.9%), '교육·문화'(11.6%) 순임
- ▶ 기타 응답으로 '방문해서 위로해주는 정책', '도림천 산책로 개선', '환경 개선' 의견이 있었음

[그림22] 민선7기 4년차 성과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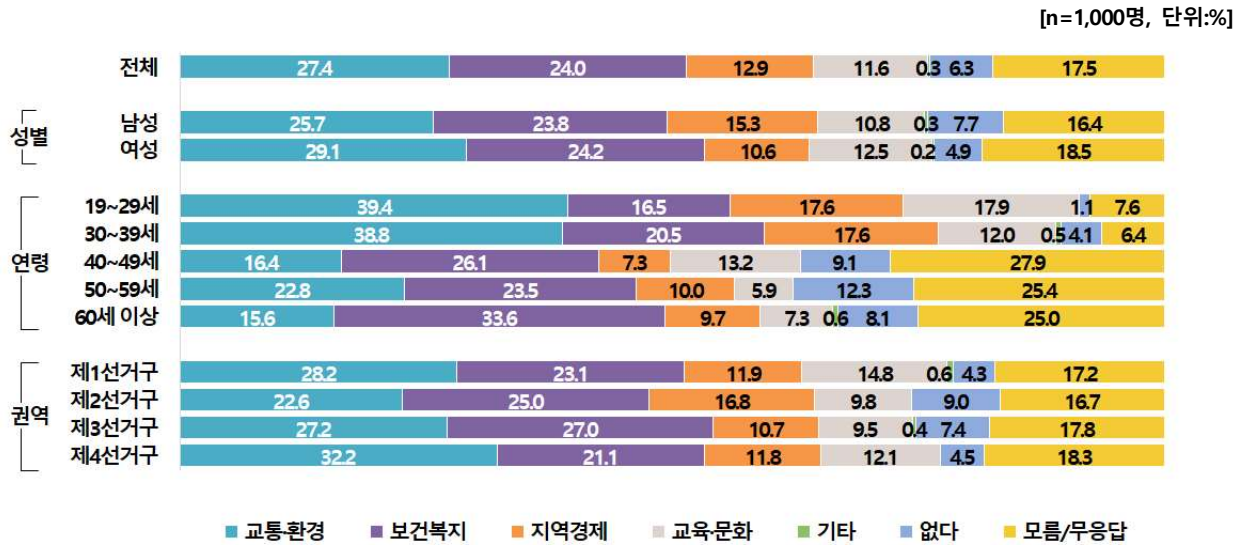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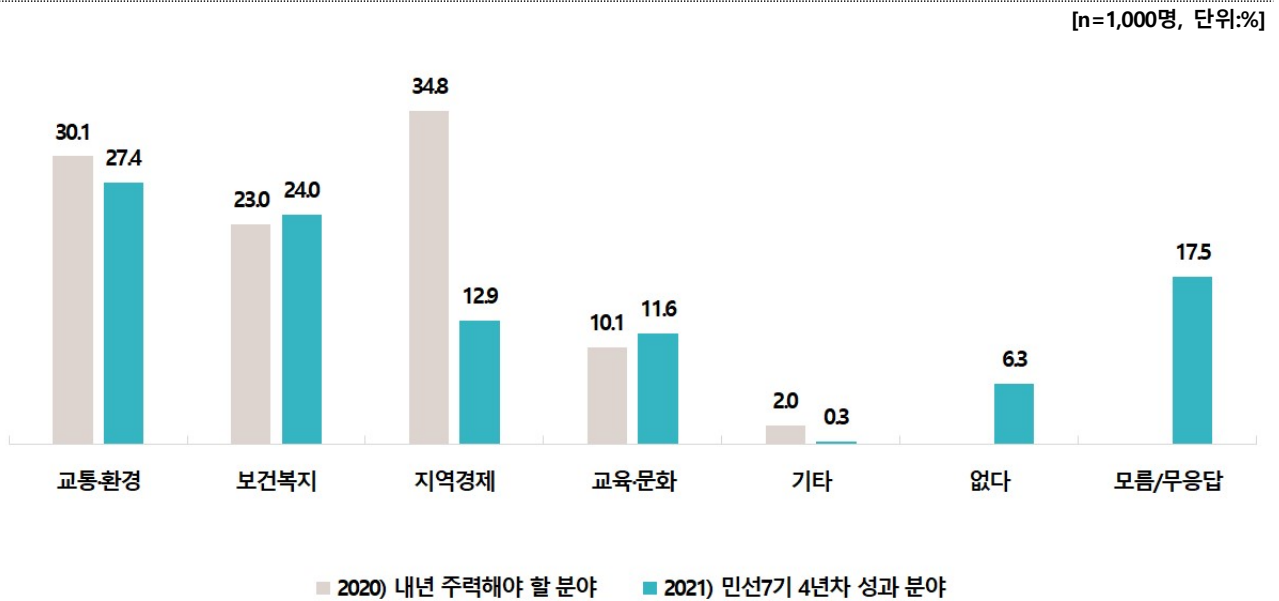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민선7기 4년차 성과가 있었던 분야를 '교통·환경'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29.1%), 19~29세(39.4%), 제4선거구(32.2%), 학생(45.9%), 5년 미만 거주자(37.6%)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다소 높았음
- ▶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보건복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24.2%), 60대 이상(33.6%), 기능/작업직 종사자(40.3%), 20년 이상 거주자(27.6%) 집단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23] 민선7기 4년차 성과 분야 응답자별 특성



[그림24] 민선7기 4년차 성과 분야 연도별 비교



요약
및
제언

- ▶ 2020년 조사에서 관악구가 내년에 주력해야 할 분야로 '교통·환경'이 30.1%로 나타났으며 2021년 조사에서 민선7기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로 '교통·환경'이 27.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 지역경제에 대한 구민들의 성과는 체감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가 원인인 것으로 보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경제분야 사업 추진 필요

[표14] 민선7기 4년차 성과 분야 비교

단위 : %		사례수 (명)	교통· 환경	보건 복지	지역 경제	교육· 문화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1000	27.4	24.0	12.9	11.6	0.3	6.3	17.5
성별	남성	501	25.7	23.8	15.3	10.8	0.3	7.7	16.4
	여성	499	29.1	24.2	10.6	12.5	0.2	4.9	18.5
연령	19~29세	257	39.4	16.5	17.6	17.9	-	1.1	7.6
	30대	192	38.8	20.5	17.6	12.0	0.5	4.1	6.4
	40대	150	16.4	26.1	7.3	13.2	-	9.1	27.9
	50대	150	22.8	23.5	10.0	5.9	-	12.3	25.4
	60대 이상	251	15.6	33.6	9.7	7.3	0.6	8.1	25.0
권역	제1선거구	270	28.2	23.1	11.9	14.8	0.6	4.3	17.2
	제2선거구	273	22.6	25.0	16.8	9.8	-	9.0	16.7
	제3선거구	228	27.2	27.0	10.7	9.5	0.4	7.4	17.8
	제4선거구	229	32.2	21.1	11.8	12.1	-	4.5	18.3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23.5	24.5	11.4	8.9	-	10.8	20.9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349	33.6	20.3	16.9	12.8	-	4.2	12.1
	기능/작업직	30	9.8	40.3	15.8	6.4	-	10.6	17.1
	가정주부	169	19.0	32.8	6.4	10.3	-	5.4	26.1
	학생	65	45.9	12.7	13.6	19.0	-	1.4	7.5
	무직	142	24.1	22.6	13.0	13.2	1.8	6.8	18.6
	기타	17	22.3	34.0	9.0	5.2	-	5.2	24.3
거주기간	5년 미만	177	37.6	18.3	16.4	17.1	-	1.9	8.7
	5년 이상~10년 미만	129	34.3	23.0	11.3	16.3	-	3.9	11.3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26.3	19.0	17.9	11.2	-	5.5	20.1
	20년 이상	543	22.7	27.6	10.8	8.8	0.4	8.6	21.0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15. 민선7기 구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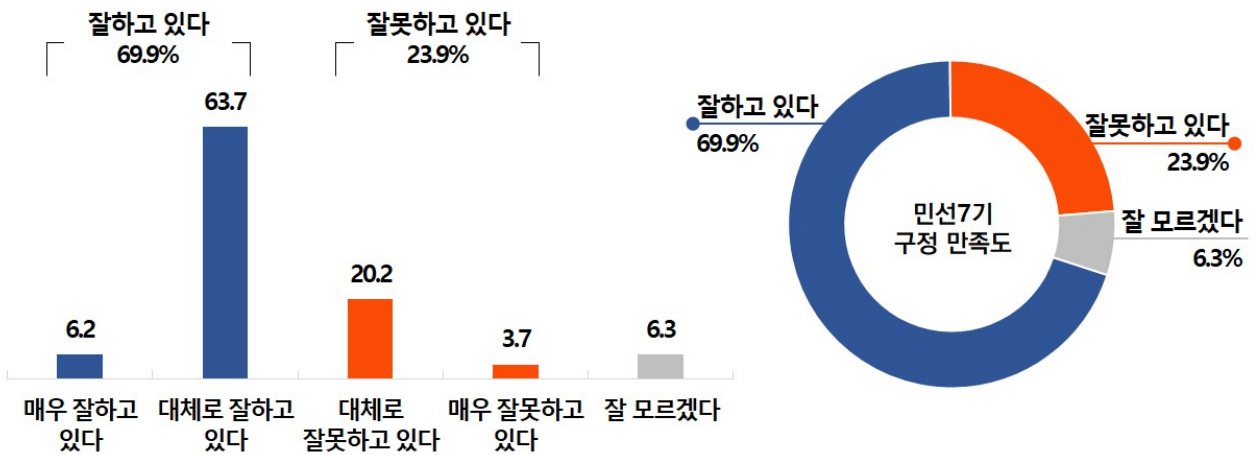
문.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

- ▶ 관악구민에게 민선7기 구정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9.9%(매우 잘하고 있다 6.2% + 대체로 잘하고 있다 63.7%)로 나타났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23.9%(매우 잘못하고 있다 3.7% +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0.2%)로 나타나 불만족 비율보다 만족 비율이 더 높았음
- ▶ 잘 모르겠다'는 유보 비율은 6.3%임

[그림25] 민선7기 구정 만족도

[n=1,000명, 단위:%]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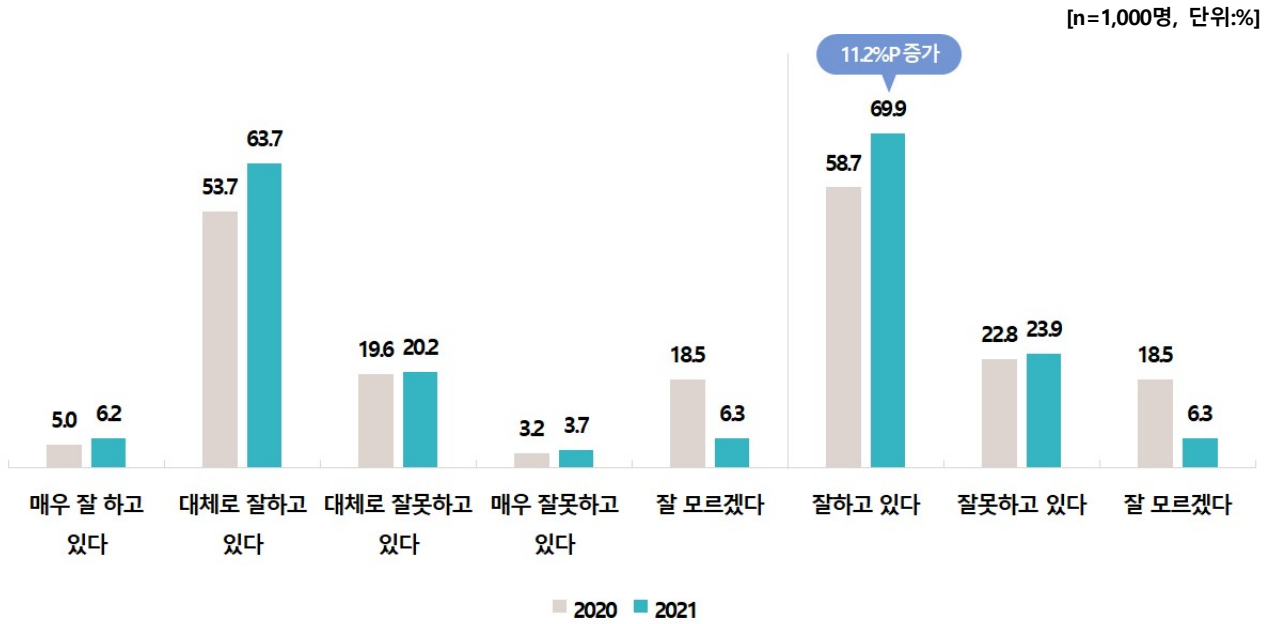
- ▶ 민선7기 구정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남성(70.6%), 30대(73.7%), 제4선거구(73.9%), 학생(78.2%),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자(75.8%)인 것으로 나타났음
- ▶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25.0%), 19~29세(28.5%), 제2선거구(26.9%), 기타 직업군(33.3%), 5년 미만 거주자(28.2%)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임

좌담회 참석자 발언

- ▶ "어느 하나 딱 짚지는 못하겠지만 구석구석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여성안심스카우트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 같습니다. 노란조끼 자주 봤어요."

[5060대 남성층]

[그림26] 민선7기 구정 만족도 연도별 비교



**연도별
응답
비율**

- ▶ 민선7기 구정 만족도는 2020년 조사에 비해 11.2%p(58.7%→69.9%) 증가하였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유보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2.2%p(18.5% → 6.3%) 줄어들어 따라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요약
및
제언**

- ▶ 관악구는 2014년 이후부터 긍정 평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 비해 2021년은 긍정 평가가 11.2%p 증가하였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 ▶ 특히 여성안전을 위한 도로바닥 LED조명등, 전봇대에 설치한 안심벨 사업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안전사업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알려지고 있어 만족도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됨
- ▶ 부정 평가가 높은 층은 남성, 20대, 제2선거구 거주자들로 학생층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임. 이들 계층은 SNS와 커뮤니티, 지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표15] 민선7기 구정 만족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잘하고 있다 ①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못하 고 있다 ③	매우 잘못하 고 있다 ④	잘 모르겠 다 ⑤	잘하고 있다 (①+②)	잘못하 고 있다 (③+④)	잘 모르겠 다 ⑤
전체		1000	6.2	63.7	20.2	3.7	6.3	69.9	23.9	6.3
성별	남성	501	6.6	64.0	20.2	4.8	4.4	70.6	25.0	4.4
	여성	499	5.7	63.5	20.2	2.6	8.1	69.2	22.7	8.1
연령	19 ~ 29세	257	2.4	69.1	26.7	1.9	-	71.5	28.5	-
	30대	192	3.9	69.8	21.6	4.7	-	73.7	26.3	-
	40대	150	9.0	58.2	19.4	6.1	7.3	67.2	25.5	7.3
	50대	150	5.1	54.0	23.4	4.8	12.8	59.0	28.1	12.8
	60대 이상	251	10.7	62.7	11.0	2.6	12.9	73.4	13.7	12.9
권역	제1선거구	270	6.3	61.3	20.5	5.9	5.9	67.6	26.5	5.9
	제2선거구	273	6.2	59.9	23.9	3.0	7.0	66.1	26.9	7.0
	제3선거구	228	8.2	64.8	19.1	1.4	6.5	73.0	20.5	6.5
	제4선거구	229	3.9	70.1	16.5	4.1	5.5	73.9	20.5	5.5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8.0	58.4	22.3	3.8	7.5	66.4	26.1	7.5
	사무/기술직/경영/관리 /전문직	349	4.3	66.2	22.4	4.8	2.3	70.5	27.2	2.3
	기능/작업직	30	8.9	55.6	16.0	-	19.4	64.5	16.0	19.4
	가정주부	169	8.6	59.3	14.0	4.3	13.8	67.9	18.3	13.8
	학생	65	-	78.2	21.8	-	-	78.2	21.8	-
	무직	142	7.0	66.9	18.0	2.2	5.9	73.9	20.2	5.9
	기타	17	7.0	59.6	28.1	5.2	-	66.7	33.3	-
거주 기간	5년 미만	177	3.9	64.8	25.2	3.0	3.0	68.8	28.2	3.0
	5년 이상~10년 미만	129	2.4	73.4	17.6	4.0	2.7	75.8	21.6	2.7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7.3	63.7	19.9	3.4	5.7	71.0	23.3	5.7
	20년 이상	543	7.5	61.1	19.2	3.9	8.3	68.5	23.1	8.3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16. 관악구 거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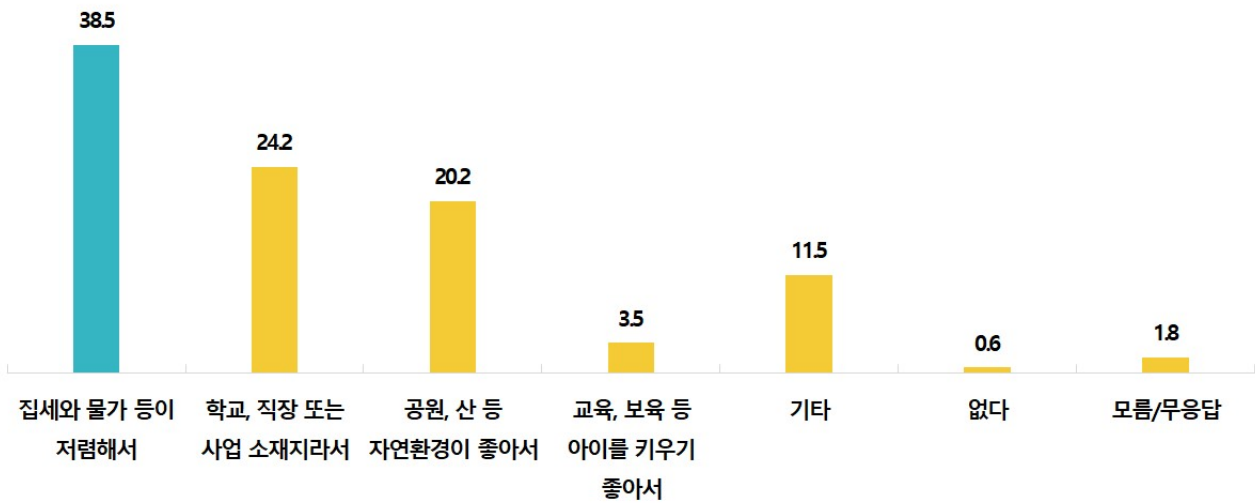
문. 관악구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사 결과

- ▶ 관악구민이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유는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38.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24.2%), '공원, 산 등 자연환경이 좋아서'(20.2%), '교육,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3.5%) 순으로 응답하였음
- ▶ 기타 응답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살아와서', '부모님이 거주해서', '교통이 좋아서', '집 값 때문에', '시장이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아서', '이웃들과 친해져서', '이사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사 갈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등 의견이 있음

[그림27] 관악구 거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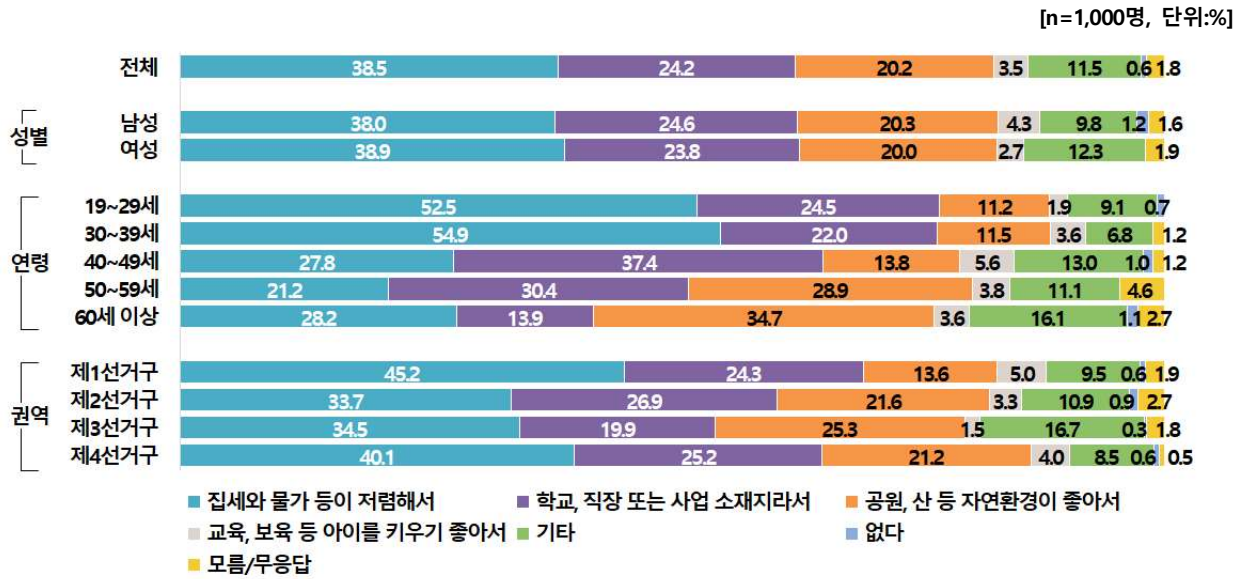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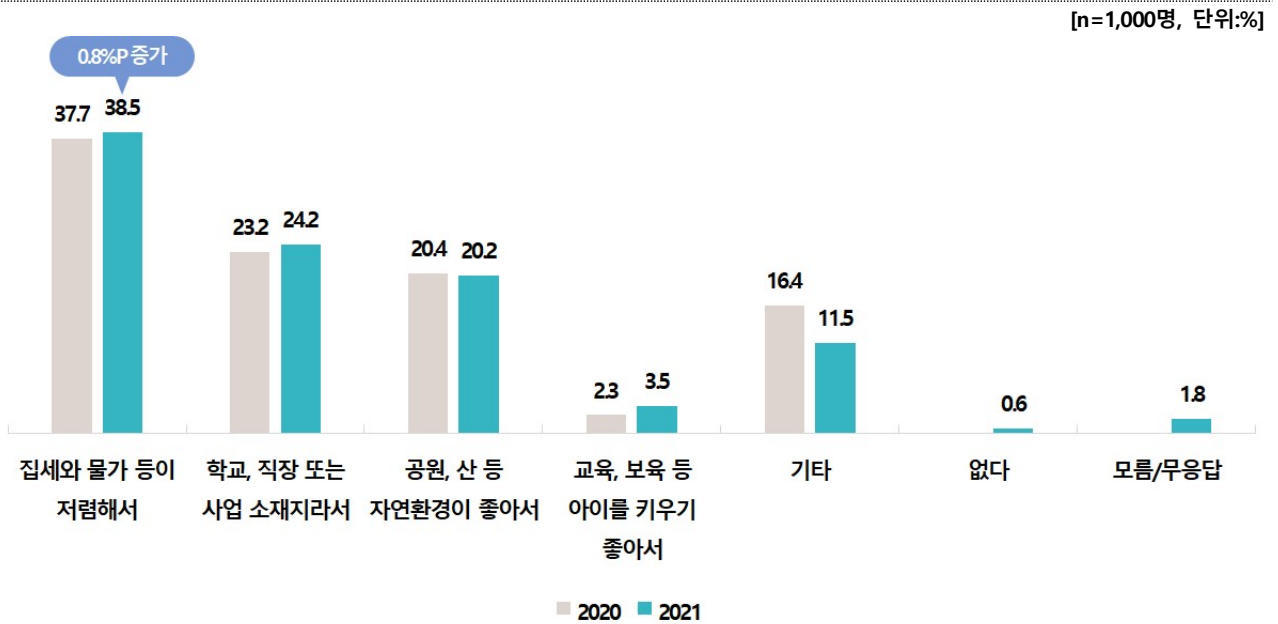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관악구 주요 거주 이유로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은 여성(38.9%), 30대(54.9%), 제1선거구(45.2%), 학생(48.7%), 5년 미만 거주자(56.1%)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비율임
- ▶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24.6%), 40대(37.4%), 제2선거구(26.9%), 자영업/판매/서비스직 종사자(42.1%),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자(34.2%)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28] 관악구 거주 이유 응답자별 특성



[그림29] 관악구 거주 이유 연도별 비교



요약 및 제언

- ▶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유가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을 2020년 조사 대비 0.8%p(37.7%→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 응답률은 1.0%p(23.2%→24.2%) 올랐으며, '교육,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 응답률은 1.2%p(2.3%→3.5%) 증가하였음
- ▶ 집세와 물가가 타지역 대비 저렴한 것은 관악구의 큰 이점이며 대학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지역민의 큰 자랑거리와 자부심으로 나타남

[표16] 관악구 거주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집세와 임대료가 저렴해서	학교, 직장 또는 업무 소재지라서	공원, 산 자연환경 이 좋아서	교육, 보육 아이 키우기 좋아서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전체		1000	38.5	24.2	20.2	3.5	11.5	0.6	1.8
성별	남성	501	38.0	24.6	20.3	4.3	9.8	1.2	1.6
	여성	499	38.9	23.8	20.0	2.7	12.3	-	1.9
연령	19 ~ 29세	257	52.5	24.5	11.2	1.9	9.1	0.7	-
	30대	192	54.9	22.0	11.5	3.6	6.8	-	1.2
	40대	150	27.8	37.4	13.8	5.6	13.0	1.0	1.2
	50대	150	21.2	30.4	28.9	3.8	11.1	-	4.6
	60대 이상	251	28.2	13.9	34.7	3.6	16.1	1.1	2.7
권역	제1선거구	270	45.2	24.3	13.6	5.0	9.5	0.6	1.9
	제2선거구	273	33.7	26.9	21.6	3.3	10.9	0.9	2.7
	제3선거구	228	34.5	19.9	25.3	1.5	16.7	0.3	1.8
	제4선거구	229	40.1	25.2	21.2	4.0	8.5	0.6	0.5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27.1	42.1	16.2	3.8	9.5	-	1.2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349	47.3	23.2	15.3	3.2	8.9	0.6	1.5
	기능/작업직	30	38.6	9.6	33.5	7.0	11.3	-	-
	가정주부	169	32.0	12.3	30.5	3.9	16.2	-	4.9
	학생	65	48.7	34.1	12.5	-	4.6	-	-
	무직	142	38.6	11.6	28.9	4.8	13.8	1.4	1.0
	기타	17	32.6	15.6	4.3	-	36.3	11.1	-
거주기간	5년 미만	177	56.1	30.1	9.3	2.4	1.0	1.1	-
	5년 이상~10년 미만	129	51.1	34.2	6.3	0.8	5.8	-	1.7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33.9	32.9	14.8	7.0	9.2	0.4	1.7
	20년 이상	543	30.9	17.5	28.6	3.6	16.2	0.7	2.4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17.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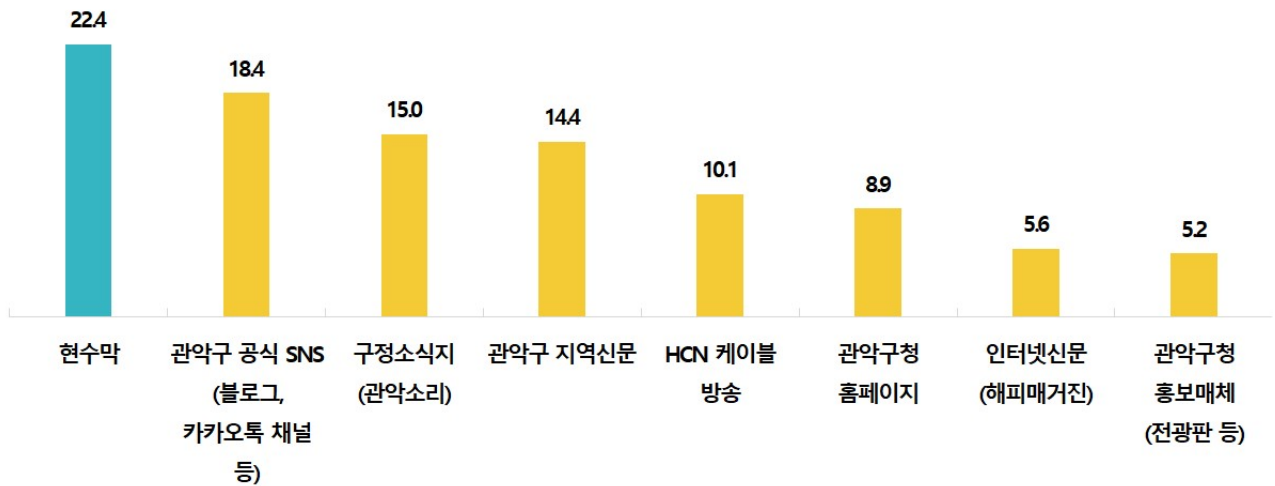
문. 관악구의 주요 소식 경로는?

조사 결과

- ▶ 관악구민의 주요 구정 소식 인지 경로는 '현수막'(22.4%)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18.4%), '구정 소식지(관악소리)'(15.0%), '관악구 지역신문'(14.4%), 'HCN 케이블 방송'(10.1%), '관악구청 홈페이지'(8.9%), '인터넷신문(해피매거진)'(5.6%), '관악구청 홍보매체(전광판 등)'(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0]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n=1,00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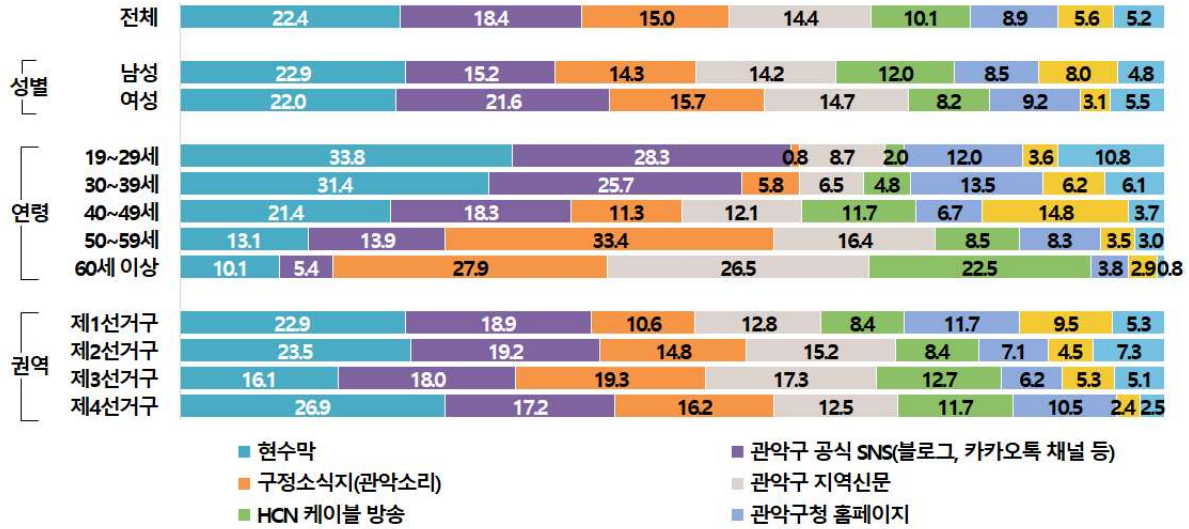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를 '현수막'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남성(22.9%), 19~29세(33.8%), 제4선거구(26.9%), 기타 직업군(48.3%), 5년 미만 거주자(34.3%)가 높은 편이었음
- ▶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21.6%), 19~29세(28.3%), 제2선거구(19.2%), 사무/기술직/경영/관리/전문직 종사자(25.7%), 5년 이상~10년 미만 거주자(29.7%)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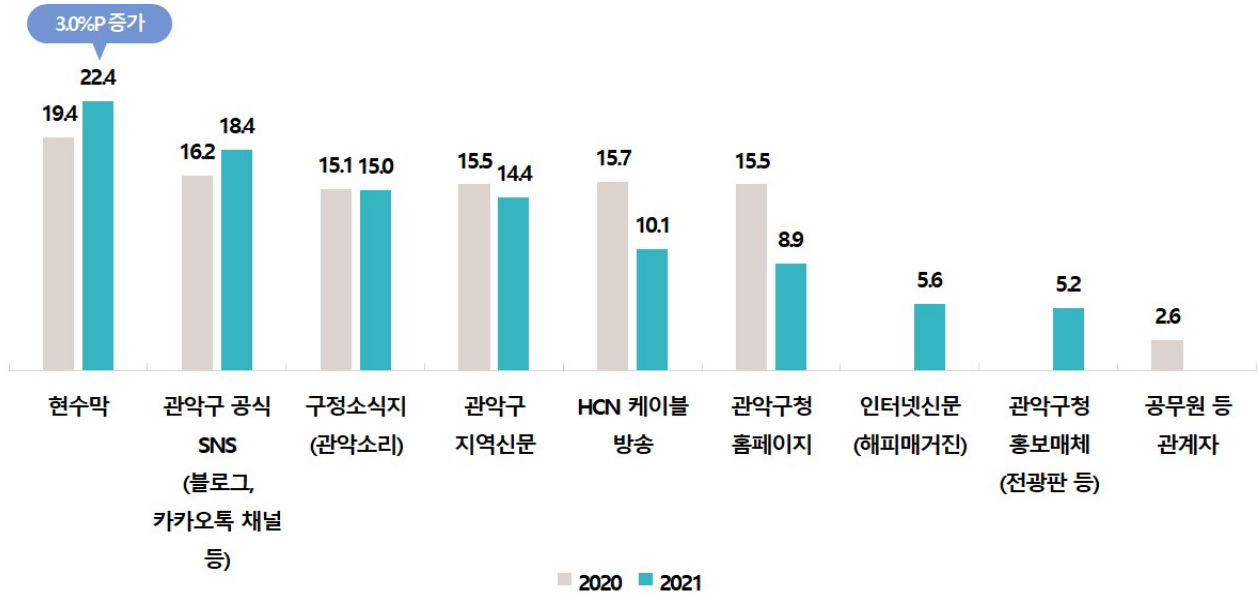
[그림31]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응답자별 특성

[n=1,000명, 단위:%]



[그림32]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연도별 비교

[n=1,000명, 단위:%]



요약 및 제언

- ▶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가 '현수막'이라는 응답은 2020년 조사에 비해 3.0%p(19.4% →22.4%) 증가하였음.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응답은 전년도 대비 2.2%p(16.2%→18.4%) 증가함
- ▶ 2019년부터 관악구민들의 주요 소식 경로 1순위는 연령 편차가 낮은 매체인 현수막임. '관악구 지역신문', '구청소식지(관악소리)' 등의 오프라인 매체의 경우 중장년층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등)', '관악구청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는 젊은 층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정책은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특정 연령대가 이용하는 매체는 연령대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게재하는 방안이 필요함

[표17]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단위 : %		사례수 (명)	현수막	관악구 공식 SNS(블 로그, 카카오 톡 채널 등)	구청소 식지(관 악소리)	관악구 신 지역 문	HCN 케이 블 방송	관악 청 홈 페이 지	인터넷 신문 (해피 매거 진)	관악 청 홍 보 매 체 판 (전광 판)
전 체		1000	22.4	18.4	15.0	14.4	10.1	8.9	5.6	5.2
성별	남성	501	22.9	15.2	14.3	14.2	12.0	8.5	8.0	4.8
	여성	499	22.0	21.6	15.7	14.7	8.2	9.2	3.1	5.5
연령	19 ~ 29세	257	33.8	28.3	0.8	8.7	2.0	12.0	3.6	10.8
	30대	192	31.4	25.7	5.8	6.5	4.8	13.5	6.2	6.1
	40대	150	21.4	18.3	11.3	12.1	11.7	6.7	14.8	3.7
	50대	150	13.1	13.9	33.4	16.4	8.5	8.3	3.5	3.0
	60대 이상	251	10.1	5.4	27.9	26.5	22.5	3.8	2.9	0.8
권역	제1선거구	270	22.9	18.9	10.6	12.8	8.4	11.7	9.5	5.3
	제2선거구	273	23.5	19.2	14.8	15.2	8.4	7.1	4.5	7.3
	제3선거구	228	16.1	18.0	19.3	17.3	12.7	6.2	5.3	5.1
	제4선거구	229	26.9	17.2	16.2	12.5	11.7	10.5	2.4	2.5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28	18.6	13.7	19.0	17.1	13.4	7.2	7.2	3.8
	사무/기술직/경영/관리 /전문직	349	27.5	25.7	5.9	8.9	3.9	14.2	6.5	7.5
	기능/작업직	30	22.0	18.4	14.1	14.4	17.3	3.8	10.1	-
	가정주부	169	11.9	17.2	26.4	21.5	15.9	2.8	3.3	1.0
	학생	65	40.3	20.5	3.1	8.8	3.5	6.4	3.4	14.0
	무직	142	17.6	9.9	23.3	18.0	15.6	8.5	3.4	3.6
	기타	17	48.3	5.2	14.3	12.2	4.3	5.3	5.2	5.2
거주기간	5년 미만	177	34.3	27.5	2.3	8.1	1.2	8.9	7.7	9.9
	5년 이상~10년 미만	129	33.2	29.7	3.6	8.0	4.0	10.3	5.9	5.4
	10년 이상~20년 미만	151	25.8	16.5	13.7	14.6	4.6	11.8	6.2	6.9
	20년 이상	543	15.0	13.2	22.3	18.0	16.0	7.8	4.6	3.1

※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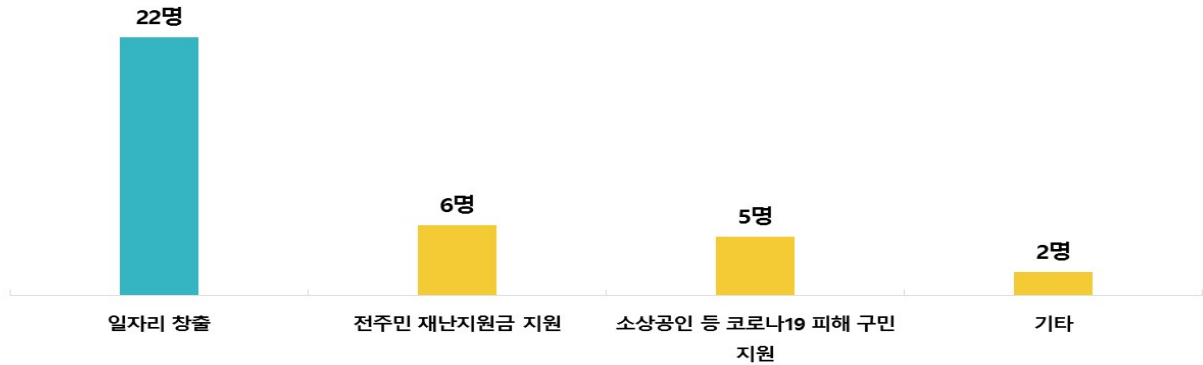
제4장

FGI 참석자 사전조사 결과 분석

제4장 FGI 참석자 사전조사 결과 분석

1.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관악구 우선 추진 정책

[그림33] 위드코로나 정책 우선순위 [n=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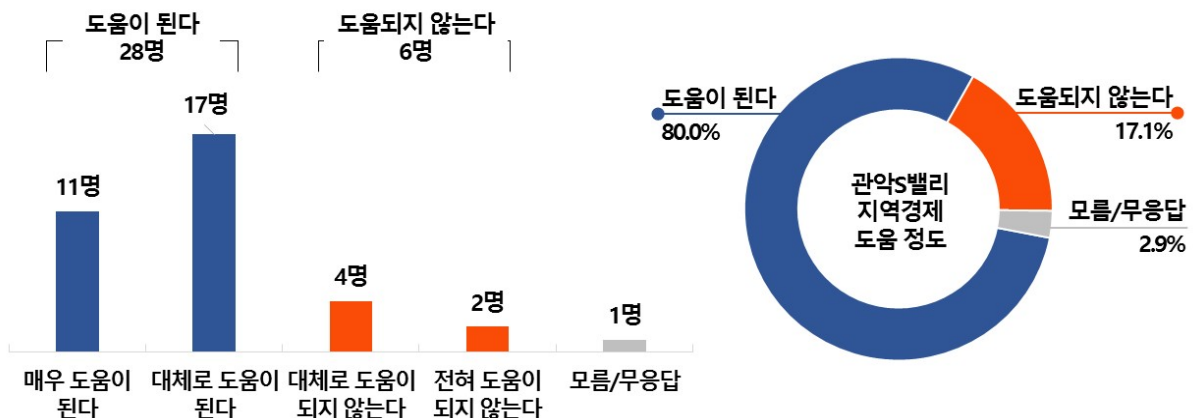


- 총 35명 참석자들 중 22명은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고 6명은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원, 5명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구민 지원, 2명은 기타를 선택함
- 일자리 창출은 주부층과 5060 고연령층에서 높게 응답됨

2.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그림34]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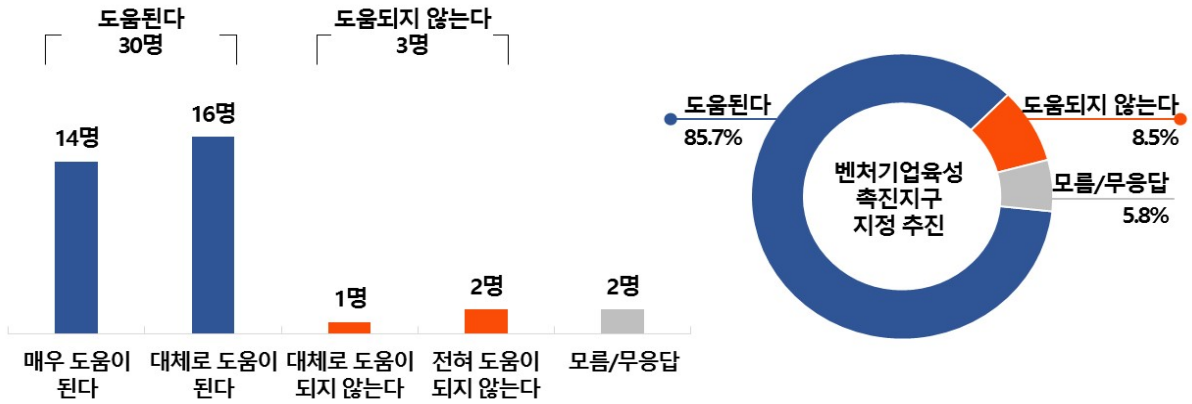
[n=35명]



- 관악S밸리가 지역경제에 도움된다는 의견은 28명이며 6명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견해인데 이는 수혜 계층이 전문지식을 가진 계층으로 한정될 것 같다는 인식 때문임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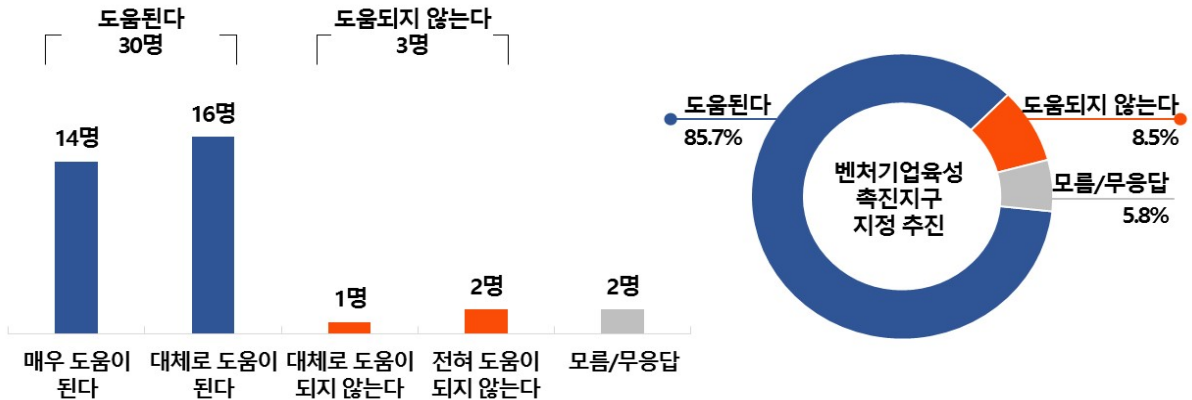
[그림3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n=35명]



- 관악S밸리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이 지역경제에 더 도움된다는 의견이 30명(86.7%)로 응답됨. 대체로 고시촌이 과거보다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산업이 관악구에 들어서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음

4.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

[그림35]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 [n=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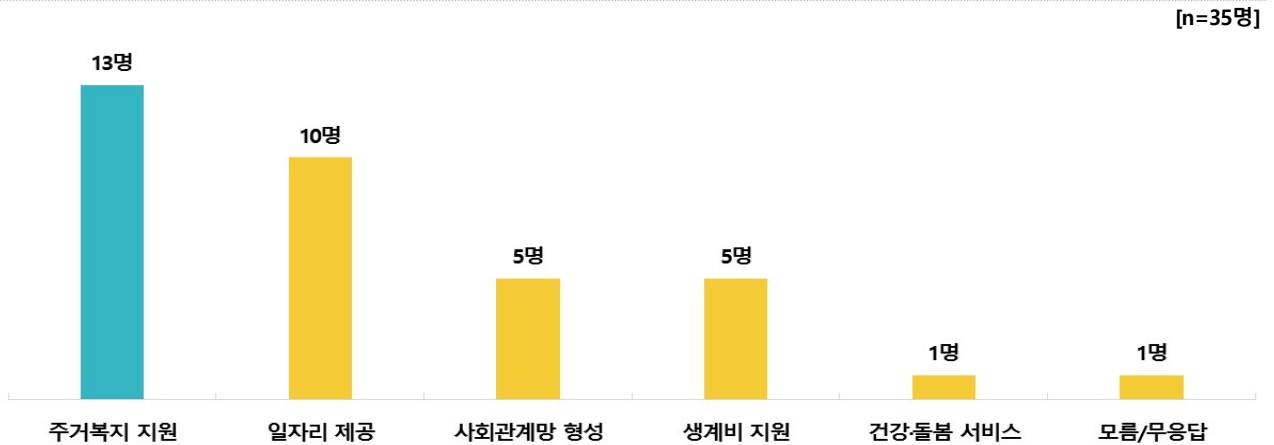


-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30(40주부층에서 선호가 높았음. 문화도시 불필요성을 선택한 사람들은 벤처단지 지원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보임

5. 1인 가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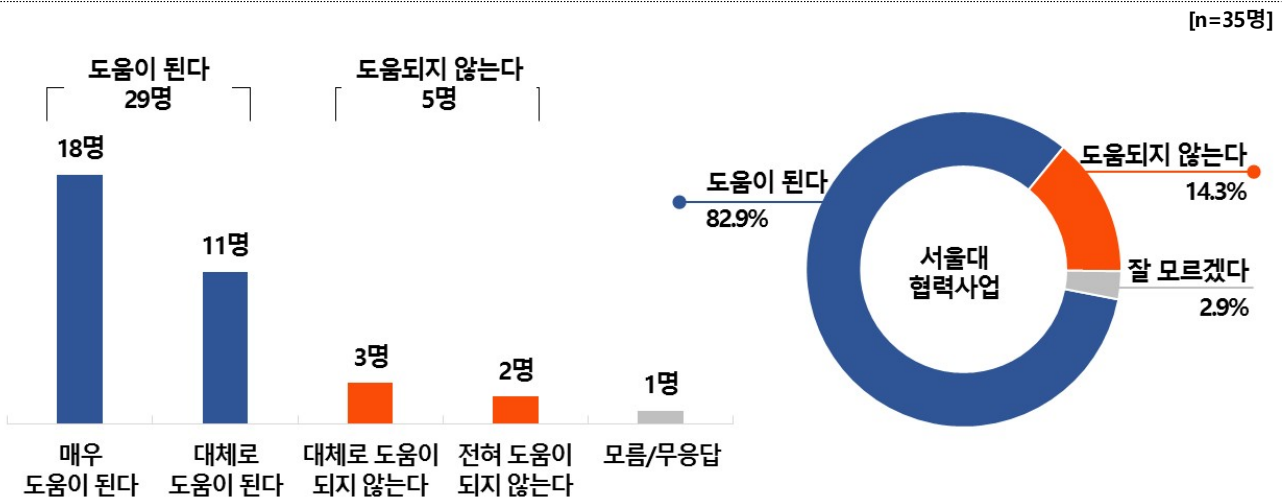
-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지원이 13명, 일자리 제공이 10명, 사회관계망 형성과 생계비 지원이 5명, 건강돌봄서비스 1명, 잘모름 1명 순으로 응답됨.

[그림37] 1인 가구 정책



6. 서울대 협력사업

[그림38] 서울대 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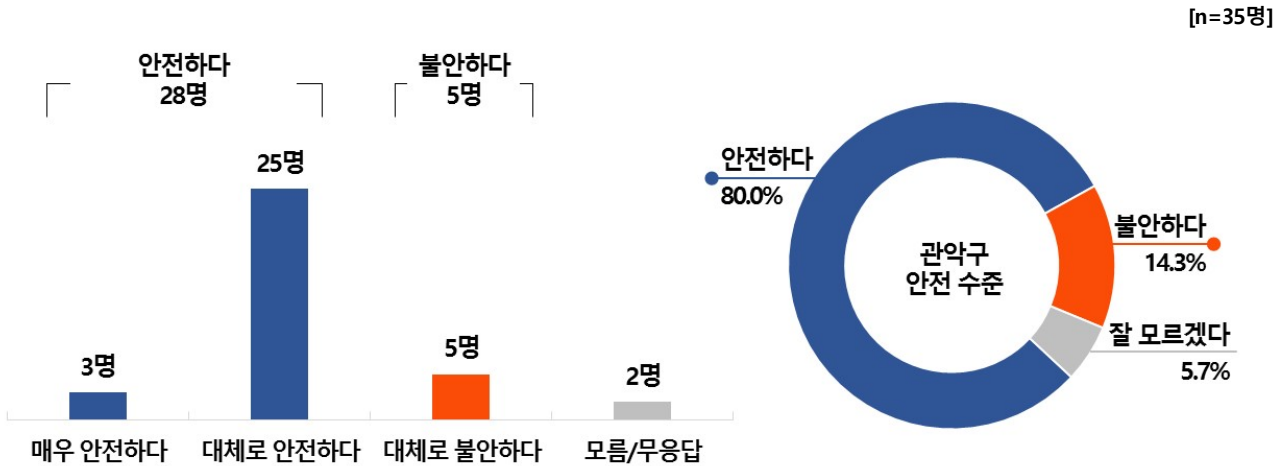


- 서울대 협력사업은 도움된다 의견이 29명으로 3040그룹에서 선호함
-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연령층에서 선호의견이 높았고 학습과 함께 탁구 등 실내운동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음
-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5명이었음

7. 관악구 안전 수준

- 관악구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28명인데 성별 인식 차이가 있었음. 대체로 안전하다는 의견이지만 3040 주부층에서는 불안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아이들 등하교시 안전을 걱정하기 때문임. 특히 다주택단지 주차장 후미진 곳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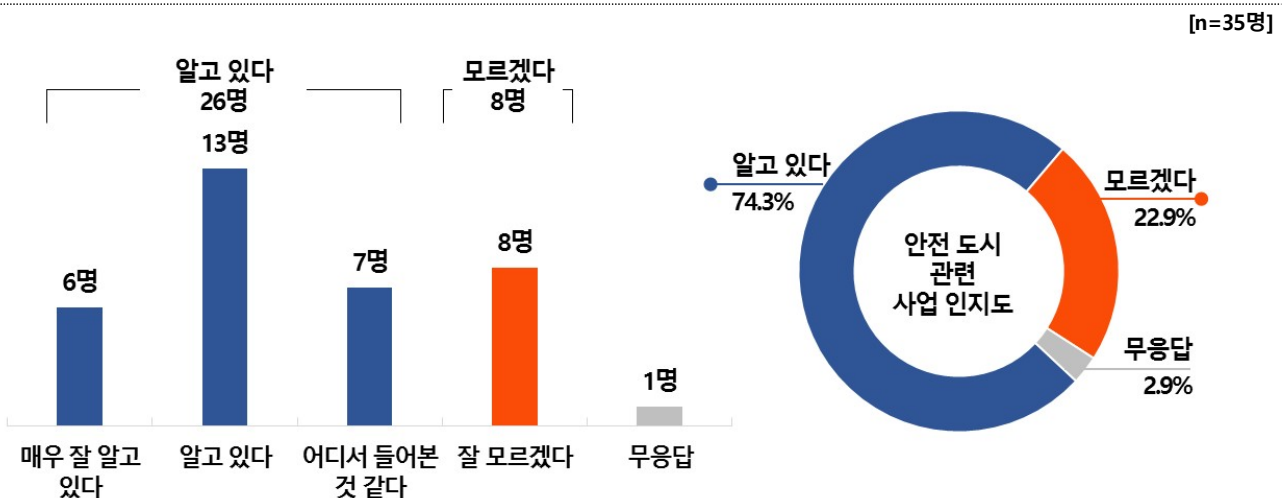
[그림39] 관악구 안전 수준



8. 안전도시 관련 사업 인지도

- 관악구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관악구의 안전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26명이 알고 있다는 의견을 보임.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안심택배와 노란조끼 안심스카우트였고 안심 스카우터 활동을 하는 분들도 높은 만족감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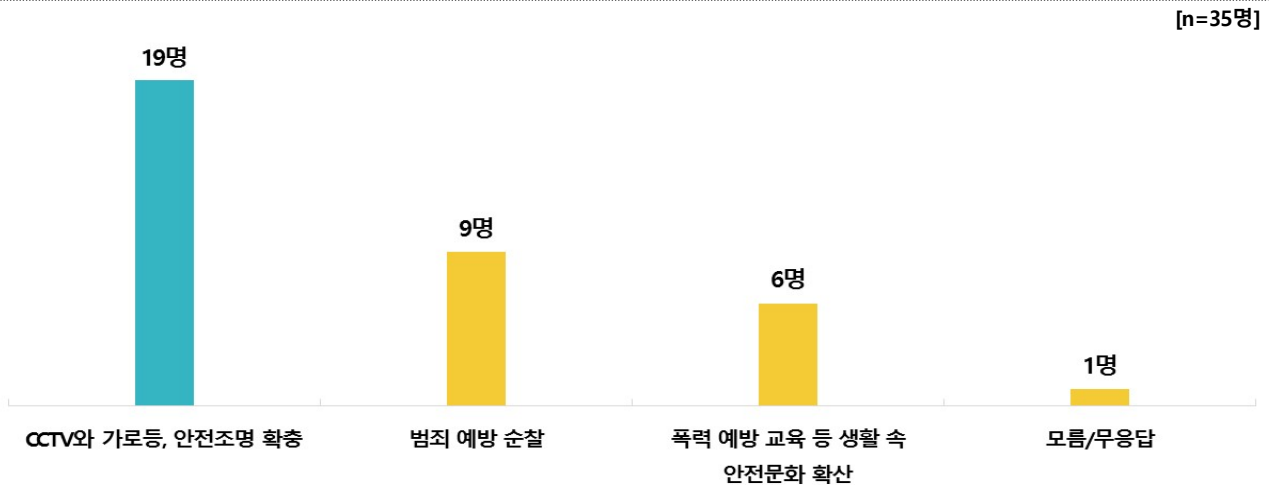
[그림40] 안전도시 관련 사업 인지도



9. 안전도시 위해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관악구 안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CCTV와 가로등, 안전조명 확충’ 선호 의견이 19명으로 가장 높았음. 특히 최근에 LED를 이용한 길바닥 조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이 있었음. 다음으로는 범죄예방 순찰 9명, 폭력예방교육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6명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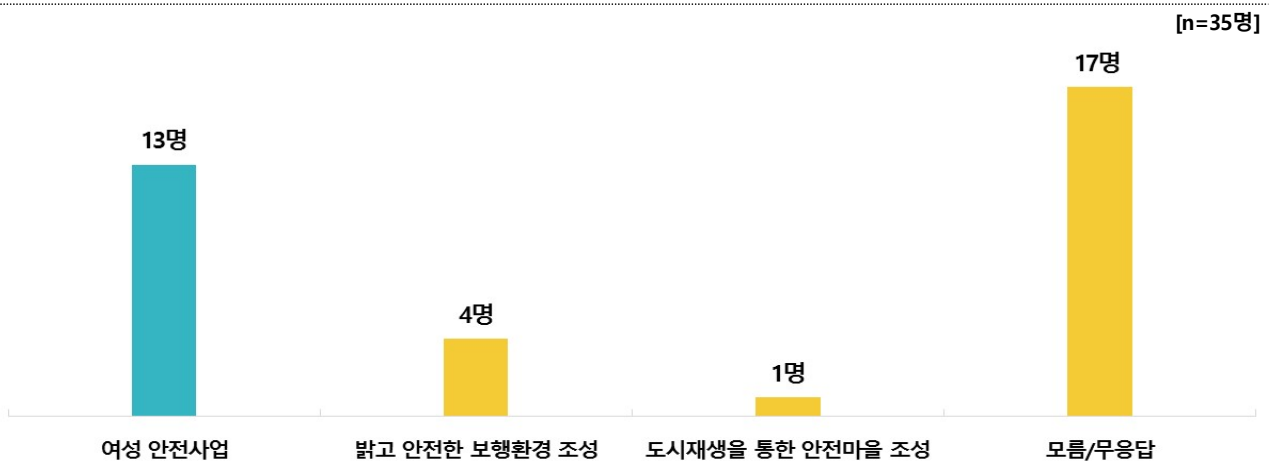
[그림41] 안전도시 위해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10. 안전사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

- 관악구 안전사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선 13명이 ‘여성안전사업’을 꼽았고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명, ‘도시재생을 통한 안전마을 조성’ 1명 순이었고 ‘잘모름’ 의견은 17명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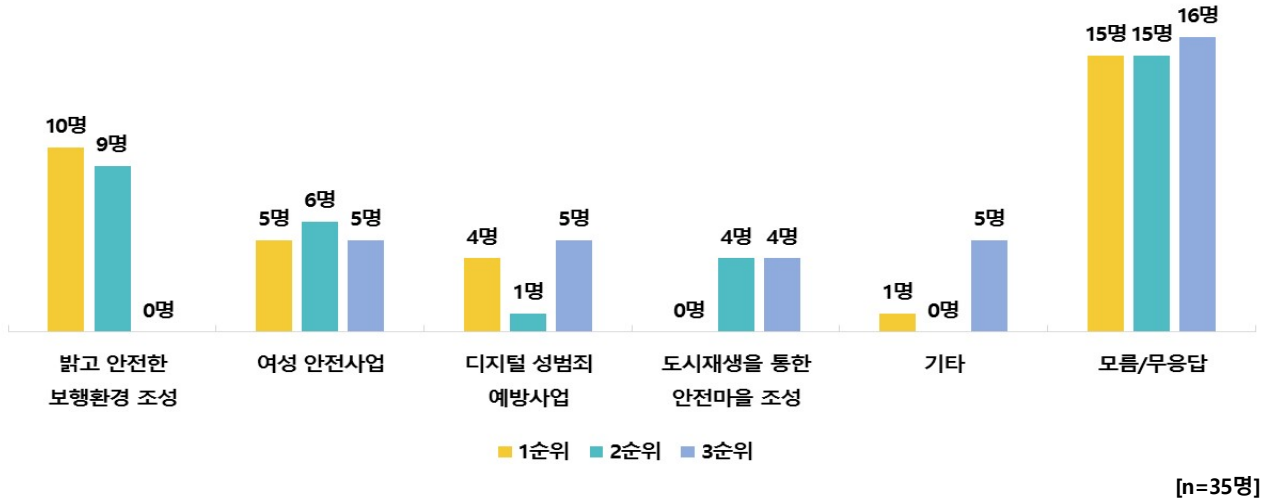
[그림42] 안전사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



10-1. 안전사업 중 집중했으면 하는 사업

- 전반적으로 잘모름 응답이 높은 가운데 1순위로는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의견이 10명으로 높게 응답됨. ‘여성안전사업’(5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4명) 순으로 응답됨. 하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안전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아서 안전사업 홍보에 더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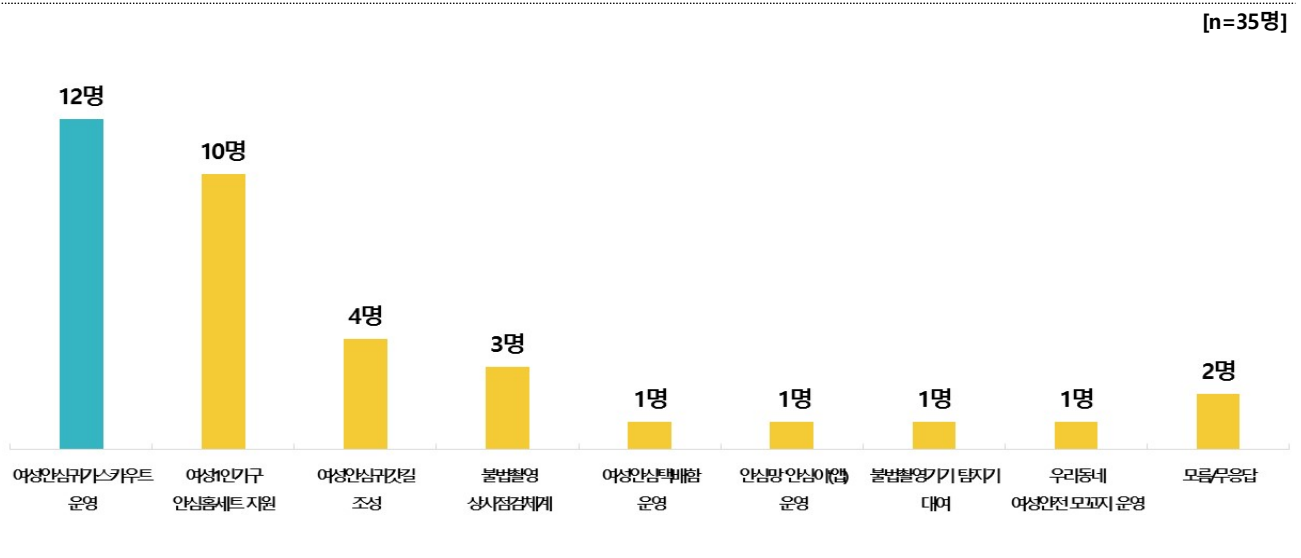
[그림43] 안전사업 중 집중했으면 하는 사업(1순위, 1+2+3순위, 복수응답)



11. 여성안전 사업

- 여성안전 사업과 관련해선 1순위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12명)이었고,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10명), ‘여성안심귀갓길 조성’(4명),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3명) 순으로 답변함

[그림44] 여성안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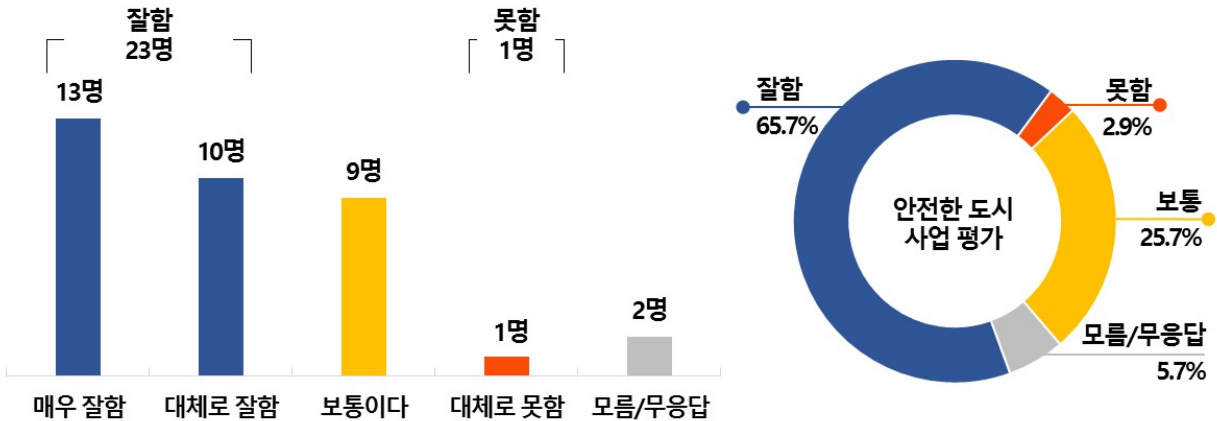


12. 안전한 도시 사업 평가

- 안전한 도시사업 평가에 대해선 잘한다는 의견이 23명,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9명, 잘못한다는 의견이 1명, 잘모름 2명으로 응답함

[그림46] 안전한 도시 사업 평가

[n=35명]



< 총 평 >

-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관악구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일자리’란 응답이 22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관악밸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문화도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30명 정도가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음. 하지만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해선 인지가 부족한 듯 했고 지역민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중장기적 비전이란 생각이어서 정책 체감도가 높지는 않음
- 관악구가 안전하고 치안 상태가 좋다는 평가지만 성별에 따라 그 강도는 달랐음. 특히 주부층에서 안전도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소 낮았지만 최근 지역에 바닥안전 조명이나 CCTV 설치가 강화되었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구에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체감하는 분위기임
- 관악구가 추진하는 안전사업 중에는 ‘여성안전 사업’(13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여성안전 사업에선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12명)와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10명)을 선택해 이 두 가지 사업이 인지도도 높고 호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그 대상층을 확대해 노인이나 어린이 대상의 이동안전에 대한 지원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임
- 안심 스카우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지역민들 역시 봉사하는 보람과 함께 소정의 비용을 받는 일자리로서 만족감을 언급함. 스카우터 활동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하지만 아직까지 관악구의 안전과 치안을 위한 안전사업 관련 인지도가 낮는데 참석자의 절반인 15명 정도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어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제5장

FGI 참석자들의 여성안전사업 인식

제5장 FGI 참석자들의 여성안전 사업에 대한 인식

1) 관악구 치안안전 정도에 대해선 안전한 인식이 절반 정도이며 성별 인식 차이 존재

○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유흥지역도 있어서 구의 안전 관리 강화 희망

“주부이다 보니까, 유흥가나 핫플레이스 이런데 많이 갈 일은 없어요. 근데 관악구에서 핫플레이스는 신림인데, 우선 유동인구가 너무 많은 건 사실이고,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는건가 라는 생각은 많이 있어요. 교통량이 워낙 많기도 하고, 뒷골목으로 간다고 치면, 정말 어디서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해요” (30대 주부)

“저는 대체로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신림역도 몇 년 살았고, 지금 7년째 살고 있는데, 일단 지역차가 있어요. 신림역 같은 경우에는 길가다 보면, 어떤 아저씨가 와서 조건 만남할래? 돈 줄테니까, 그런 식으로 제의를 받은 적도 있고, 저 혼자 살았을 때, 저희 집만 계속 문고리 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위험해서 제가 이 쪽으로 옮긴 거란 말이예요. 그만큼 지역의 안전 수준에 차이가 많이 나요” (20대 여성)

“1차가 우선 순찰 강화이고, 2차가 가로등이에요. 아직 되게 어두워요. 관악구는 골목, 대로변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골목들은 가파르고 굉장히 어두워서요, 가로등 이게 2차가 되어야 합니다” (30대 주부)

“1인 여성 가구들을 서로 모임을 만든 적이 있어요. 2층 3층에 같이 사는 분들이, 친해져서, ‘나 무서우니까 너 3층으로 이사와, 비었어’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 무섭거나 그럴 때, 사실 경찰한테 ‘저 무서우니까 지금 좀 와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20대 여성)

“저는 여성 1인가구는 아니지만 관악구가 뉴스에 몇 번 나왔잖아요? 보면서 정말 뉴스에 날 정도로 심각하구나, 안전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디지털 예방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30대 주부)

2) 안심홈세트 이용자 평가 매우 좋아 이용자 목소리를 홍보 콘텐츠화 할 필요

○ 안심홈세트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음

“그게 딱 닫으면 비밀번호를 풀어도 절대 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 실제적으로 차이가 엄청 많이 나구요, 안심 홈세트 중에 열고 닫고 이걸 문자로 보내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20대 여성)

“안심세트 중 경찰에 신고가 되고, 녹음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정말 심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새벽에 편의점을 가거나 독서실을 갔을 때 그걸 들고 가면 살짝 안심 돼요” (20대 여성)

“CCTV를 사당역 앞에 달아주셨는데, 그게 진짜로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 움직임이 포착되면은 어플로 이렇게 알림이 와요. 일하고 늦게 들어가면 되게 무서웠어요. 집에 누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창문, 제가 열어놔도 있는데 열려져 있으면 그대로 뛰쳐 나가서 친구 집에서 잘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있으니까 너무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30대 여성)

“여성 안심 택배함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설치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20대 여성)

3) 3040대 다세대주택 거주자, 어린이 놀이터 청결 문제와 청소년 공간 분리 의견

- 다세대나 빌라가 많은 동네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들용 놀이터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가 되고 있으므로 관리 필요

“관악구가 넓잖아요. 애들은 많고 놀이터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7살 밑이고 그런 애들이 노는 공간에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이 와버리면 유치원 애들이 치어요. 그러면 어린 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유치원 애들 놀아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놀아버리면 저희가 피하게 되지요. 또 놀이기구 청소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40대 주부)

“애들 친구들이 사는 비싼 아파트는 놀이터도 엄청나게 잘 돼 있잖아요. 저는 동네 놀이터 가서 노는 거 너무 싫거든요. 아파트 놀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노후가 돼서 미끄럼틀도 페인트 벗겨져 있고 그네도 삐그덕 거리고 할머니들 할아버지 앉아서 얘기하고 계시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아니에요” (30대 주부)

- 관악구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긴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므로 다세대 밀집지구엔 도서관 추가 개원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면 버스 타고 2~30분은 가야 하잖아요. 책 한 번 보러 가려면 그냥 가까이 그냥 한 번씩 들리고 해야 하는데 책을 보려면 마음먹고 가야 해요. 차라리 관악구에서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곳에 건물을 매입 해주셔서 거기에 도서관을 제대로 해놓으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대 주부)

“저는 도서관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일단은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주민 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 근데 거기 가면 한 5명 정도 있으면 딱 찰 정도예요. 코로나일 때는 아예 문을 닫은 상태고 코로나 없을 때도 가면 애들이 편히 앉아 있을 만한 공간은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도서관은 먼 곳이 아니라 지역 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 더 지으면 좋겠어요” (50대 주부)

4) 관악구가 추진하는 여성안전 사업에 대한 인지는 ‘안심귀가 스카우터’, 5060 일자리로도 좋은 평가

- 관악구 여성안심귀가스카우터 봉사를 하면서 타인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는데 봉사기간이 좀 더 길면 좋겠다는 의견

“저는 다른 지역에서 살다 관악구로 왔는데 안심스카우터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가씨들이 첨에는 경계를 보이지만 안전하게 도착하면 고맙다고 할 때 힘이 나죠. 좀더 오래 했으면 좋겠고 여성 뿐 아니라 어르신도 안심귀가에 도움 드렸어요” (60대 주부)

“일할 거리를 찾다가 우연히 스카우터 일을 하게 됐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비를 받으니까 좋아요. 하루에 보통 3,4명을 동행하는데 힘들기도 해요. 비오는 날 우산 받쳐주면 정말 좋아해요” (60대 주부)

“저도 1인가구 안심세트를 받았고, 요리 밀키트도 있다고 들었어요. 친구가 ‘주변에서 이런 거 있대. 관악구청에 가서 신청해봐’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20대 여성)

5) 관악구 여성안전도시 활동과 함께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병행 필요

- 관악구에서 다양한 안전활동을 벌이지만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고 흡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 캠페인도 필요하다는 견해

“1인 가구가 많은 다세대 주택 근처를 가면 흡연을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담배 꽂초를 그대로 길거리에 버려서 눈이 온 것처럼 수북이 쌓입니다. 누가 치우지도 않아요. 구에서 ‘노담’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60대 주부)

“담배 피우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딱 후미진 가정집 골목길에 꺾이는 부분 그런 데 모여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화재 예방도 필요하고 옛날 집들은 밖에다 보일러를 설치해 놓으니까 화재 사고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성 흡연자들도 있다 보니 싸움이나 범죄 등으로 이어질까 조마조마해요” (40대 자영업)

6) 관악구의 안전사업에 대한 체감도가 과거보다 높지만 여전히 인지도 낮아 홍보 강화

- 안전바닥 조명 등이 많이 늘었는데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점검 필요 의견

“스마트 안전 조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led로 교체가 다 되었거든요. 너무 환해요. 오히려 밤에 불을 꺼놔도 도로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커튼을 쳐야 할 정도로 대낮처럼 환해요. 근데 너무 환해서 불편한 것도 있고 CCTV 설치 이런 거는 시민들의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위험한지를 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위치인지 그리고 요새는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가 더 필요한 거 같아요”(40대 직장인)

“남자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르네요. 저는 무섭거든요. 근데 저희 골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체로 잘 돼 있어요. 바닥 같은 LED 조명으로 다 해놓고 전봇대 같은 경우는 또 비상벨 같은 것도 있고 CCTV가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는데 관악구는 다세대랑 빌라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이사이 골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 골목 올라가는 데는 괜찮은데 그 옆에 골목만 봐도 깜깜해요. 무섭고 누가 지나가도 겁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아이 엄마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항상 유괴 같은 얘기를 해주고 위급할 때는 저기 벨 있으니까 눌러 하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게 작동이 되긴 하는 건가요? (40대 주부)

“공원 안에 요즘에 불법 촬영 때문에 화장실에 다 비상벨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찰이 오는 횟수가 정말 많아요. 되나 안 되나 호기심에 눌러보는데 정말 경찰이 출동하거든요. 제가 공원 담당자라서 아는데 정말 출동해요. (50대 자영업)

“바닥에 설치된 조명은 괜찮더라고요. 바닥에 설치된 그거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바닥이 동그랗게 이렇게 길 따라서 쪽 있어요. (30대 주부)

“딸, 아들 키웠는데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집이 대로변에 있는 완전 대로변에 있는 빌라예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차도 항상 다니는데 정문은 그렇지만 후문은 뒤쪽 주차장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냥 한 블록만 들어가도 진짜 굉장히 깜깜하고 위험하거든요. 태권도 학원이 집에서 뛰면 1분도 안 걸리는데 후문으로 못 다니게 해요. 주차장 그게 잠깐 한 10초 정도 이 길이 위험해서 언제 어디로 데려가서 뭘 할지를 모르고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요. 저희 집 뒤에도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 있어요. 있어도 그냥 뭐 사각지대 쪽으로 그냥 차 주차된 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면 끝이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도 관악구가 아주 어둡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밝아야지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기고 나쁜 일 못 할 것 같아요” (40대 주부)

“치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저희가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 같은 동선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지요. 저녁에 돌아다녀도 위험하다고 하면 여성분들인데 저는 동네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60대 자영업)

“자율 방법하고 있는데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경찰 인원이 진짜 풍족해서 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험한 지역에만 자주 순찰을 하시는 거지 보편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자율 방법하시는 분들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만들어주던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서 치안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50대 직장인)

7) 관악구 중장기 비전사업의 경우, 지역에 기여하는 경우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지원 필요

- 관악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사업들을 하는데 지역에 그 효과가 지역에서 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홍보할 필요

“솔직히 3년간 관악S밸리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겠거든요. 직접 관심 있어서 찾아보지 않는 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거를 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40대 자영업)

“관악S밸리 사업이라는 걸 예전부터 들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졸업하고 관악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관악구에 정말 거주를 하는 서울대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40대 직장인)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다들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실 텐데 그래서 친환경 사업을 그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주부)

“서울대생 말씀하셨는데 저는 관악구의 특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악구에만 있는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젊을 때 딱 들어와서 4년 동안 빌려 쓰고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왔을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멘토링 서비스 이거를 좀 더 활발하게 하면 좋겠어요” (40대 직장인)

8) 관악구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주거정비사업 활성화에 더 힘 쏟길

- 관악구는 아직도 다세대 다가구 지역이 많아서 참석자들 중 일부는 ‘빌라족’ 이란 표현도 사용. 주거정비사업에도 관심갖고 챙겨주길 희망함

“관악구가 특히 봉천동 그 다음에 신림동 이런 데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집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쪽 저희 본가는 신림동 미림여고 그쪽에서 하시는데 거기 또 재건축 자기네들끼리 또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당곡 사거리 이쪽도 재건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재건축을 빨리빨리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승인해주게 있을텐데 너무 미진해요” (40대 주부)

“성북구랑 관악구가 제가 보기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안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집들이 노후화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재건축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할 때도 됐어요. 아파트도 20년 다 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60대 남성)

“저는 지주택(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많아요. 알아보고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불안해서요. 지주택들이 없어지는 데가 많잖아요” (60대 주부)

”너무 이사하고 싶은데 비싸서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첫째가 있을 때 이사 온 집이었거든요. 첫째 있을 때 저희는 4인 가구가 아니라 3인을 생각하고 이사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둘째가 생기고 아이 성별이 다르다 보니 저희는 각각의 방이 필요하고 조금 더 넓은 거실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이사 가고 싶은데 지금 있는 빌라를 팔고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40대 주부)

”관악구가 밀집촌이 되게 많아요. 관악구가 인구가 되게 몰려 사는 곳이 많고 땅덩어리는 좁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주택이 되게 많이 형성돼 있는 곳이 꽤 있어요. 신림3지구 같은 경우는 철거가 들어가서 거기는 인구 대비 그래도 땅덩어리가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건 저는 국회 단지 쪽이라고 생각해요. 국회 단지쪽 공유시장 쪽에 있는 은천동 거기는 인구 밀집도가 많은 곳이에요. 땅덩어리에 비해 그래서 거기를 재개발 들어간다고 해도 최대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를 먼저 손을 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관악구는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나마 경전철이 들어옴으로써 역세권으로 바뀌면 풀리겠지요. 제약이 됐던 부분들을 빨리빨리 풀어서 땅을 넓힐 수는 없으니까 위로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낮은 저층들이 밀집된 곳은 빨리빨리 재개발 해서 위로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50대 직장인)

”40년 살다 보니까 주변 친한 사람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아이는 이미 학교 들어갔는데 아이를 전학시켜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40대 자영업)



관악구 성현동에 설치된 안심벨



관악구 중앙동에 설치된 안심벨

별첨

설문지

2021년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000입니다. 저희는 관악구의 의뢰를 받아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응답자 특성

SQ 1) 실례지만 선생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9세 미만(☞ ①이면 조사 중단)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세 이상

SQ 2)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관악구 무슨 동입니까?

- ① 보라매동 ② 은천동 ③ 성현동 ④ 중앙동 ⑤ 청림동 ⑥ 행운동 ⑦ 청룡동 ⑧ 낙성대동
⑨ 인현동 ⑩ 남현동 ⑪ 신림동 ⑫ 신사동 ⑬ 조원동 ⑭ 미성동 ⑮ 난곡동 ⑯ 난향동
⑰ 서원동 ⑱ 신원동 ⑲ 서림동 ⑳ 삼성동 ㉠ 대학동 ㉡ 관악구가 아님(☞ ㉡이면 조사 중단)

SQ 3)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제3의 성

※ 조사 항목

문 1) (문화도시 육성 필요성) 관악구는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③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불러주지 말 것)

문 2) (위드코로나 정책 우선순위)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악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① 일자리 창출 ②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구민 지원
③ 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사업 ④ 전주민 재난지원금 지원
⑤ 기타 (적어주세요 :)

문 3) (경제-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정도) 관악구는 지난 3년 간 '관악S밸리' 사업으로 창업공간 11개소 조성, 창업지원펀드 신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관악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③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불러주지 말 것)

문 4) (경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 관악구는 창업기업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③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불러주지 말 것)

문 5) **(교육-서울대 협력사업)** 관악구는 서울대와 협력하여 구민들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관악 교육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③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불러주지 말 것)

문 6) **(복지-1인 가구 정책)** 관악구는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1인가구입니다.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악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① 일자리 제공 ② 주거복지 지원 ③ 사회관계망 형성
④ 생계비 지원 ⑤ 건강·돌봄 서비스 ⑥ 기타 (적어주세요 :)

문 7) **(안전-범죄 없는 안전도시)** 관악구에서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5개년 계획’ 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현재 안전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② 대체로 안전하다
③ 대체로 불안하다 ④ 매우 불안하다 ⑤ 잘 모르겠다 (불러주지 말 것)

문 8) **(안전-범죄 없는 안전도시)** 관악구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① CCTV와 가로등, 안전조명 확충 ② 범죄 예방 순찰
③ 폭력 예방 교육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④ 안심홈세트 지원 등 안전취약 대상 지원사업
⑤ 기타 (적어주세요 :)

문 9) **(교통-교통인프라 정책)** 관악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① 공영주차장 확충 ② 자전거 도로 확충
③ 통학로 개선 ④ 보행환경 개선 ⑤ 기타 (적어주세요 :)

문 10) **(청정삶터-별빛 내린천(도림천) 특화사업)** 관악구는 도림천을 ‘별빛내린천’으로 이름짓고 야간 경관 개선, 벽천분수 설치 등 차별화된 힐링공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이 관악구 생활환경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③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불러주지 말 것)

문 11) **(청정삶터-쓰레기 배출일)** 관악구 주거지역의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되는 요일은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 ① 토요일 ② 일요일 ③ 월·수·금 ④ 화·목·토
⑤ 모든 요일 가능하다

문 12) **(혁신-주민 소통채널 구독 의향)** 관악구에서는 구정 주요 소식을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소통 채널을 구독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구독 의향 있다 ② 구독 의향이 없다 ③ 좀 생각해 보겠다

문 13) **(혁신-스마트도시 구축)** 관악구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 신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도시발전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 ③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불러주지 말 것)

문 14) **(민선7기 4년차 성과 분야)** 2021년은 민선7기 4년차로 공약 이행률 87.4%(2021. 2분기 기준)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민선7기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보기 로테이션)

- ① 지역경제 ② 교육·문화 ③ 보건복지 ④ 교통·환경
- ⑤ 기타 (적어주세요 :)

문 15) **(민선7기 구정 만족도)**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 ⑤ 잘 모르겠다 (불러주지 말 것)

※ 일반사항

문 16) **(관악구 거주이유)** 관악구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기 로테이션)

- ① 교육,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 ②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
- ③ 공원, 산 등 자연환경이 좋아서 ④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
- ⑤ 기타 (적어주세요 :)

문 17)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관악구의 주요 소식 경로는? (보기 로테이션)

- ① 현수막 ② 구정소식지(관악소리) ③ 인터넷신문(해피매거진)
- ④ 관악구 지역신문 ⑤ HCN 케이블 방송 ⑥ 관악구청 홈페이지
- ⑦ 관악구청 홍보매체(전광판 등) ⑧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2021

관악구 정기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연락처	02-879-5000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조사기관	한국여론연구소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514호 TEL) 02-761-5111 FAX) 02-761-5112
